

국제뇌교육협회 지속가능성보고서 2016

# BRAIN EDUCATION

---

**IBREA Sustainability Report 2016**

## 국제뇌교육협회 2016 지속가능성보고서

---

- 보고기간** 2015년 1월 ~ 2017년 2월
- 보고범위** 국제뇌교육협회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및 지속가능성 이슈
- 보고원칙**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국제적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을 시민사회단체의 특징에 맞춰 구성된 'NPO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되,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보고서(Communication on Engagement, COE)를 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보고검증** 제3자 검토 의견(alt.lab)
- 보고주기** 2년
- 공개원칙** 기관 웹사이트 상시 공개 [www.ibrea.org](http://www.ibrea.org)
- 추가정보** **전화** 02-3452.5894  
**이메일** [pmir@ibrea.org](mailto:pmir@ibrea.org)  
**웹사이트** [www.ibrea.org](http://www.ibrea.org)



# 목차

<b>I. 국제뇌교육협회 소개</b>	기관 소개	10
	비전과 미션	11
	조직 구조	12
	의사 결정	13
	연혁	16
<b>II.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b>	주요 이해관계자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20
	중요성 분석을 통해 본 핵심 이슈	22
<b>III. 뇌교육이란</b>	왜 뇌인가, 인류 미래 키워드 ‘뇌’	28
	21세기 정보화사회, 인간 뇌에 미치는 영향은?	30
	휴먼테크놀로지 뇌교육	31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뇌교육	35
<b>IV. 사업 보고</b>	한눈에 보는 2015~2016 사업 성과	40
	<b>뇌교육 글로벌 네트워크</b>	
	아시아 청년 국제교류 프로젝트	42
	제1회 지구시민 평화 페스티벌	54
	뇌교육 두뇌올림피아드 IHSP0	58
	<b>뇌교육 융합 컨설팅</b>	
	뇌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연계 방안 연구 협력	68
	지구시민교육 세미나	82
	벤자민갭이어 세계시민 청년강사 워크숍	86
	<b>뇌교육 정보 확산</b>	
	세계뇌주간 전국 뇌교육 세미나	90
	《브레인》매거진 발행	92
<b>V. 운영의 지속가능성</b>	회계 투명성	96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모금	100
	후원자 관리	101



# 발간사

2015년 9월,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합의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발효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협력 차원에서, 국제뇌교육협회의 설립 목적에 따른 뇌교육의 다양한 활동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지향하는 변화의 포괄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을 위한 전 방위적 협력과 연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체 17개의 목표 중 16, 17번째 목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한 세부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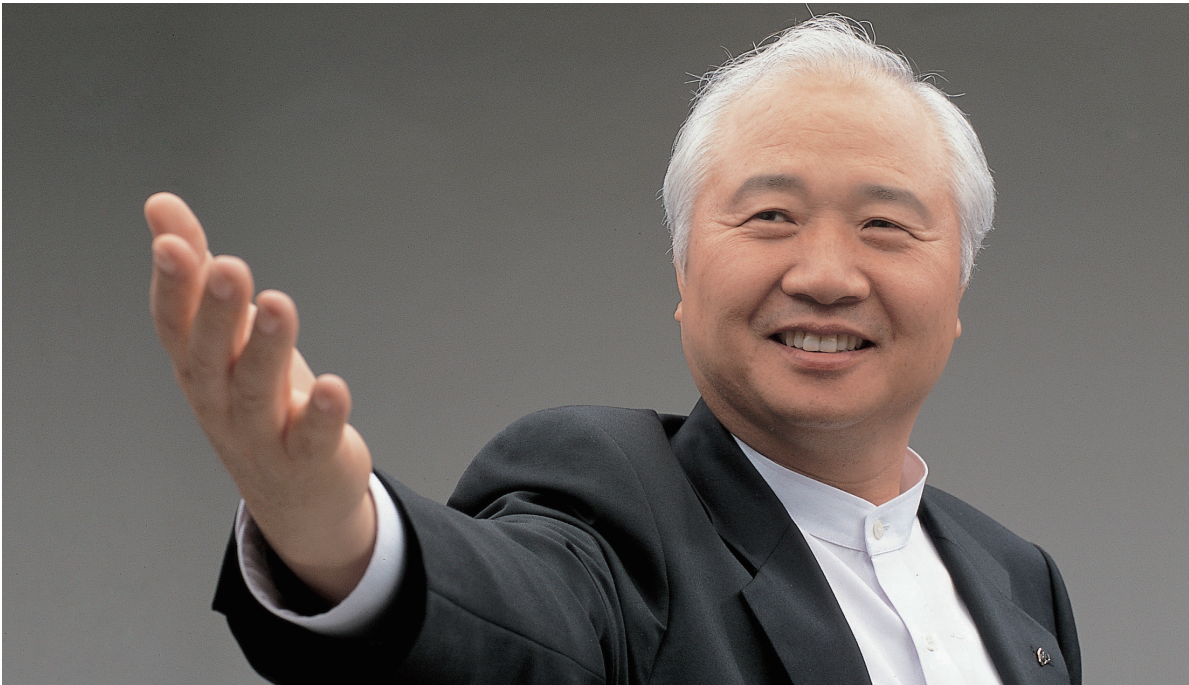
국제뇌교육협회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이러한 참여와 협력 파트너십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의 투명성과 책무성,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 구조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지속가능성보고서 2016> 발간을 계기로 뇌교육 확산의 공동 목표를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융합 시너지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을 체계화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입니다.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 보고서>에서 '교육의 네 가지 기둥'을 통해 기술하고 있듯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움의 내재된 가치를 높이고 저마다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인간 완성입니다. 뇌교육은 인간 뇌의 올바른 활용과 계발을 위한 평화 철학과 두뇌 발달 원리, 체험적 교육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인간 뇌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탐구를 넘어 근본 가치를 높이는 교육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국제뇌교육협회 사무국

## 국제뇌교육협회장 메시지



“국제뇌교육협회는 오늘날 인류문명을 창조한 ‘뇌’가 지닌 무한한 자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로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국제뇌교육협회는 유엔공보국(UN-DPI) 정식지위 NGO기관으로 국제사회가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속에서 '정보'가 새로운 문명의 키워드가 될 것이며,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인간다움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문명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지구 생태계의 위협과 인간성 상실의 시대 속에서 지속가능한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높아져 가지만, 그 해답은 결국 인간이 뇌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문명을 만든 것이 인간 뇌의 무한한 창조성이듯, 인류가 당면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 또한 바로 인간의 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뇌교육은 인간 뇌 속에 내재된 인성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평화 기술(peace technology)'입니다. 평화철학, 두뇌발달원리, 체험적 교육방법론에 기반한 뇌융합교육으로서, 누구나 가진 인간 다움의 가치를 회복하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바탕인 뇌를 활용하는 교육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고, 내재된 생명력을 회복함으로써 자연지능을 깨우는 '휴먼테크놀로지(human technology)'이기도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류 미래의 자산이자 과학의 마지막 영역인 뇌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 인지과학, 심리학 등 모든 분야에서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 뇌에 대한 심층적 연구성과는 학문의 발전은 물론, 건강,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뇌에 대한 인식을 넓혀 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진보가 가져다준 인간 뇌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은 결국 올바른 뇌의 활용에 있습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정보처리기관입니다.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뇌를 개발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연결된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가 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뇌교육은 인간 뇌의 정보처리기술로서 창조적이고 평화적인 뇌를 만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 대상만이 아닌 활용의 대상으로 인지할때, 인류가 추구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열쇠가 우리의 뇌 속에 있음을 자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교육(Brain Education)은 오랜 학술적 탐구와 뇌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30여 년간의 건강, 교육, 자기계발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적용 과정을 거쳐 세계 최초로 뇌교육 분야의 4년제 대학, 석박사 대학원을 설립함으로써 학문적 체계화를 이루었습니다.

뇌교육은 한국의 반만년 정신문화적 자산과 21세기 뇌과학의 만남입니다. 고대 한국의 조상들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사상을 강조한 '천지인(天地人)',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스렸던 '심신쌍수(心身雙修)', 인간 의식성장의 원리와 방법론인 '수승화강(水昇火降)', '심기혈정(心氣血精)', '정충기장신명(精充氣壯神明)' 등을 생활문화로 체득해 왔습니다.

한국의 고대문헌인 《삼일신고—신훈 편》에는 '자성구자 강제 이뇌(自性求子 降在爾腦)'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풀이하면 '본성에서 찾으라. 이미 너희 뇌 속에 내려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상과 수련체계는 오늘날 뇌교육의 철학과 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뇌교육의 평화철학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라는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이자 인류 보편적 정신을 내포한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이 그 뿌리입니다.

고대 한국의 창세설화가 담긴 <부도지>에 보면, 이상적 공동체였던 '마고성'이 존재했으며 자연적인 절대가치를 외면하고 인위적인 가치를 중시하다 감각과 욕망에 빠지게 되면서 그 장자인 황궁씨가 마고성을 떠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후, 마고성과 같은 인간 본성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복본(復本)의 서약은 황궁씨에서 유인씨로, 한인, 환웅 그리고 홍익인간 이념으로 나라를 세운 단군조선으로 이어집니다.

마고복본의 서약은 인간의 뇌가 가진 '창조성'과 '평화성'이라는 두 수레바퀴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뇌교육의 지향점이자 표류하는 인류 문명의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의식과 문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으로 뇌교육을 평화기술로서 국제 사회에 알려가는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지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





# [ UNGC 10대 원칙 ]

## THE 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

### 인권

- 0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0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노동

- 0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04 •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하며,
- 05 • 아동 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 0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환경

- 07 • 기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0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09 •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반부패

- 10 • 기업은 부당 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국제뇌교육협회 소개

10 기관 소개

11 비전과 미션

12 조직 구조

13 의사 결정

16 연혁

## 기관 소개

**단체명** | 국제뇌교육협회 (IBREA,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협회장** | 이승헌

**설립 연도** | 2004년

**소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길 11 캐럴라인타워

### 주요 사업

- 뇌 기반 교수-학습법 연구 개발
- 뇌 기반 교육에 관련된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
- 연구 발표회, 학술 대회, 강연회 개최
- 협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활동
- 뇌 기반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는 홍보 및 후원 활동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참여 기관
  - 유엔공보국(UD-DPI) 정식 지위 NGO
  - 뇌교육 글로벌 중추 기구, 비영리 국제 단체

국제뇌교육협회는 21세기 인류의 미래 키워드인 '뇌' 자산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뇌교육의 개발 및 보급, 인증,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 단체입니다. 2006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2008년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첫 국제 뇌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했고, 2010년 6월에는 유엔공보국(UN-DPI) 정식 지위 NGO로 등록했습니다. 2009년 2월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미국 비영리 기관 IBREA Foundation 설립을 계기로, 뇌교육 프로그램 국제사회 보급, 국제 뇌교육 인턴십 · 국제 뇌교육 콘퍼런스 · 세미나 · 두뇌올림피아드 IHSPQ 국제대회 개최, 《BrainWorld》 정간물 발행 등을 통해 국제적인 뇌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두산대백과사전



# 비전과 미션

국제뇌교육협회(IBREA)는 오늘날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이 인간 뇌의 창조성에서 비롯됐듯, 인류의 정신적 가치 하락과 지구 생태계 위협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열쇠 또한 인간 뇌 속에 답이 있다는 인식으로 평화적인 뇌를 만드는 철학, 원리, 방법론을 갖춘 '뇌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만들고자 설립했습니다.

## 비전 VISION

“국제뇌교육협회는 인류의 미래 자산인 ‘뇌’의 창조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활용하는 뇌교육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지속 가능한 인류와 지구촌 문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미션 MISSION

- **[글로벌 연대] 뇌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 유엔 기구 연계 국제 세미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 뇌교육 국제 포럼 및 연대 구축
  - 아시아 청년 네트워크 구축
- **[정보 확산] 뇌 활용의 중요성과 가치 증진을 위한 정보 확산**
  - 인류의 미래 키워드로서 뇌의 중요성과 가치 확산 캠페인/세미나 개최
  - 뇌교육 매거진 발행, 소셜미디어 기반 정보 확산
  - 뇌교육 두뇌올림피아드 개최 통한 뇌의 가치 확산
- **[융합 컨설팅] 뇌교육 원리 접목 통한 사회 영역별 융합 시너지 창출**
  - 뇌교육 기반 미래 교육 모델 구축 및 융합 시너지(벤자민인성영재학교)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개발 및 공교육 적용(지구시민교육)
  - 멘탈헬스 증진 위한 뇌교육 기반 셀프 힐링 매니지먼트 개발 및 확산 (배꼽힐링)

## 핵심 가치 CORE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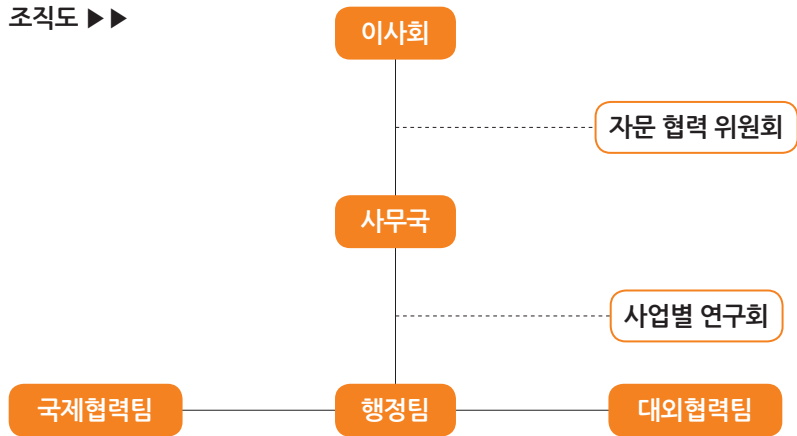
- 수평적 정보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정보 연결성 강화
- 지속가능한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한 공동체 문화 확대
- 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한 사회 영역별 참여 문화 확산

# 조직 구조

(사)국제뇌교육협회는 설립 취지에 맞춰 뇌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비영리 국제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참여 회원사 및 유엔공보국(UN-DPI) 정식 지위 NGO에 가입돼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자문 기관과 협력 파트너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으나 설립과 운영목적에 따라, 자문 기관과 주요 협력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자문 협력 위원회'를 두고 의견 수렴과 의사 결정 전체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중심으로 국제협력팀, 대외협력팀, 행정팀을 두고 있으며, 협회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조직도 ▶▶



<b>이사회</b>		이사 11명, 감사 2명 (주요 구성: 자문 기관, 협력 파트너 대표)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자문, 사업 정기·비정기 협의
<b>자문 협력 위원회</b>		자문 기관, 협력 파트너 대표 및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위원회 - 자문 기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학문적 전문성, 컨설팅 제공 - 협력 파트너: 영역별 뇌교육 전문 기관으로 구성, 융합 시너지 창출
<b>사업별 연구회</b>		사업별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산하 연구회를 설립, 운영함 (예)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추진 - 지구시민교육연구회
<b>사무국</b>	<b>국제협력팀</b>	유엔 기구, 해외 협력 파트너 기관 협력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 관리
	<b>대외협력팀</b>	자문 협력 기관, 후원자 그룹 관리 언론 홍보, 소셜미디어 관리, 인쇄물 제작 관리
	<b>행정팀</b>	법인 운영 관리, 회계 관리 지정 기부금 단체 관리

# 의사 결정



협회의 사업 추진과 의사 수렴 과정에 자문 기관, 협력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 자문 기관과 협력 파트너의 대표, 실무 책임자가 포함된 '자문 협력 위원회'가 상시 참여합니다. 보통 사업

별로 오프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하며, 이후로는 비디오 콘퍼런스를 통해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비디오 콘퍼런스는 평균 주 1회는 실무진 회의를 진행하며, 평균 월 1회 자문 협력 위원회 회의가 진행됩니다.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자문 협력 위원들이 참가하는 '전문가 포럼'을 열어, 중점 논의 및 토론을 통해 사업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자문 협력 위원회 개최 현황(상시 개최 제외, 주요 안건 회의만 기재)

개최 시기	주요 안건
2015년 2월	2015 세계뇌주간 기념 뇌교육 전국 세미나 개최 논의 제10회 뇌교육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국제대회 개최 협의
2015년 3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방안
2015년 7월	세계시민교육 연계 방안, 지구시민교육연구회 발족
2015년 10월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공교육 적용 방안 논의
2016년 1월	한중일 지구경영 워크숍 제주 개최 협의 한중일 지구시민포럼 제주 개최 협의
2016년 2월	2016 세계뇌주간 기념 세계시민교육 전국 세미나 개최 논의 제11회 뇌교육 올림피아드 한국 개최
2016년 4월	경주 유엔NGO콘퍼런스 참가 및 활용 방안 논의
2016년 5월	제11회 뇌교육 올림피아드 뉴욕 국제대회 협의 한중일 지구시민 워크숍 개최 협의
2016년 9월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참여보고서 제작 협의
2016년 11월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라운드테이블 개최 협의 뉴질랜드 지구시민 평화 페스티벌 및 뇌교육 국제 심포지엄 협의

## 자문 협력 위원회

국제뇌교육협회는 뇌교육 분야 국내외 자문 기관, 협력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자문 협력 위원회'를 두고, 뇌교육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 I. 자문 기관

#### [과학기술 분야]

##### 한국뇌과학연구원 KIBS, Korea Institute of Brain Science

- 인간 뇌 활용 분야 대표 연구 기관 (1990년 설립)
-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협의 지위 기관 승인 (2007)
- 뇌교육 원천기술 BOS 개발, 뇌교육 중점 연구



#### [학문화/인재 양성 분야]

##### 국제뇌교육학회 IRABE, International Research Association for Brain Education

- 뇌교육 분야 국제 학회
- 뇌교육학의 학문적 발전 도모, 뇌 관련 제반 학문의 융·복합 탐구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GCU, Global Cyber University

- 4년제 학위 과정 뇌교육 융합학 부 최초 개설 (2011)
- 뇌교육 특성화 대학, 감정노동 교육 전문 기관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UBE,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 뇌교육 석·박사 학위 과정
- 뇌교육 학문화의 산실



#### [뇌철학/문화 분야]

##### 국학원

- 한민족 고유의 역사 문화 철학 연구, 교육기관 (2002년 설립)
- 뇌철학 연구 및 정립





## II. 협력 파트너

### [해외 파트너]

#### ECO, Earth Citizens Organization (USA)

뇌교육 기반 지구시민운동 비영리 단체

#### Brain Power Wellness (USA)

미국 뇌교육 교사 연수 및 강사 양성 기관

#### U-DAP Solution (China)

중국 뇌교육 교육 기업

#### IBREA-JAPAN

일본 뇌교육협회, 뇌교육 활동 중심 단체

### [국내 파트너]

#### 국제뇌교육협회인증원

뇌교육 인증 기관, 민간 자격증 운영 [www.ibrec.net](http://www.ibrec.net)

#### 브레인트레이너협회

뇌교육/두뇌 훈련 분야 국가 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 공식 협의체 [www.brain-tr.org](http://www.brain-tr.org)

#### (사)한국뇌교육원

뇌교육 연수 기관, 교사 연수 단체, 인성교육 [www.hanedu.com](http://www.hanedu.com)

#### (주)비알뇌교육

아동·청소년 분야 뇌교육 대표 기업 [www.brainedu.com](http://www.brainedu.com)

#### (주)키즈뇌교육

영·유아 분야 뇌교육 교육 기업 [www.brainddori.com](http://www.brainddori.com)

#### (주)HSP컨설팅유담

뇌교육 기반 산업교육 전문 기업 [www.u-dap.com](http://www.u-dap.com)

#### 브레인트레이닝상담센터

두뇌 기반 전문 상담 및 트레이닝 센터, 두뇌 훈련 비약물 치유 [www.brain-training.co.kr](http://www.brain-training.co.kr)

#### (사)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뇌교육 기반 청소년 인성 전문 교육기관, 청소년 멘탈헬스케어 [www.youthinsung.org](http://www.youthinsung.org)

#### 단월드

뇌교육 기반 성인 멘탈 헬스 케어 [www.dahnworld.com](http://www.dahnworld.com)

#### 브레인월드닷컴

뇌교육 두뇌 포털 사이트 [www.brainworld.com](http://www.brainworld.com)

#### (사)대한국학기공협회

뇌건강 증진 생활스포츠키공 [www.sportskigong.org](http://www.sportskigong.org)

## 연혁

2004 11.15	국제뇌교육협회 설립	2009.11.13.	한중일 유엔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콘퍼런스 참가
2005 1~4차	뇌교육 학술대회 개최	2009.12	UN기후변화 캠페인 'Seal the Deal' 참여
2006.09.15.	서울시교육청 사단법인 인가		
2006.10.28.	사단법인 창립 기념 제 1회 국제 뇌교육 심포지엄 개최 (장소: 고려대)		
2007.12.15.	뇌교육 매거진 《브레인》 한국뇌과학연구원 공동 발행 참여	2010.1.8.	뉴욕-서울 '뉴욕 시 뇌교육의 날' 1주년기념 동시 세미나 개최
2008	일본뇌교육협회(IBREA-JAPAN) 비영리 법인 NPO 등록	2010.1.19.	지구시민운동, UNEP 유엔 기후변화 캠페인 참가 감사레터 수신
2008.3	세계뇌주간 기념 전국 15개 도시 뇌교육 세미나 개최	2010.5	뇌교육 올림피아드 IHSP0 2010 기념 전국 14개 도시 세미나 개최
2008.06.20.	유엔본부 국제 뇌교육 콘퍼런스 개최 (장소: 뉴욕 UN본부)	2010.5.12.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반부패 심포지엄 참석
2008.08.12	뇌교육 올림피아드 IHSP0 4회 국제대회 개최 (장소: 뉴욕 UN본부)	2010.6.30.	유엔공보국(UN DPI) NGO 정식 지위 승인
2009.1	유엔본부 정신건강 뇌교육 세미나 개최 (장소: 제네바 유엔본부)	2011.6	교육과학기술부 뇌과학: 교육 융합 정책 과제 참여(글로벌사이버대학교) _뇌과학에 기반한 학생 창의 인성 함양 및 학습력 증진 방안 연구
2009.2.15.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회원사 가입	2011.11.27.	제7회 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 본선 대회 개최
2009.2	UN CONGO Board 회의 참석(장소: 태국)	2011.12.17.	KOICA(한국국제협력단) 민간단체 사업발굴지원 단체 선정
2009.3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UNGC-Korea) 회원사 가입		
2009.6	유엔환경계획(UNEP) Billion Tree Campaign Partners 지정	2012.4.21.	대한민국 제1회 브레인 엑스포 개최(장소:코엑스)
2009.7.6.	유엔연례각료급회의 정신건강 뇌교육 세미나 (장소: 제네바 UN본부)	2012.6	KOICA 민간단체 사업발굴지원 지역 조사 선정
2009.8.15.	브레인 아트 페스티벌 개최 (장소: 뉴욕 라디오시티)	2012.7	교육부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 파트너 참가 _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정서 조절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공교육 지원(뇌교육 컨설팅 및 전문 교원 양성)
2009.10.28.	유엔환경계획(UNEP) '70억 그루 나무 심기' 감사장 수신	2012.8	브레인 엑스포(BrainExpo) 두뇌 교육 세미나 주최
		2012.10	KOICA 민간단체 사업발굴지원 지역 조사 시행(라이베리아)

2012.11	지구온난화와 UN 활동 국제 세미나, 그린크로스 공식 후원	2016.3.17	16개국 참가 세계지구시민운동연합 대회 공동 개최(서울)
2013.1	전국 9개 도시 멘탈헬스 강연회 개최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	2016.4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이해와 참여 포럼' 참석(주최: UNGC-Korea)
2013.8	중남미 뇌교육 홍보대사 위촉(대상자: 글로리아 몰러 호킨스 로데스노 학교장, 엘살바도르)	2016.4	'2016 COE 워크숍' 참여 (주최: UNGC-Korea)
2013.8	청소년 멘탈헬스 심포지엄 개최 - '뇌, 행복교육을 말하다'	2016.5	'제66차 유엔NGO 콘퍼런스: 세계시민교육' 참가 (장소: 한국 경주)
2013.10	일본뇌교육협회, 일본유니세프협회 기부 (시리아아동 구호)	2016.5	서울시NPO지원센터 '2016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지원 사업' 선정
2013.12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승인	2016.6	청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지원 사업 실시
2014.4	파라과이 교사 한국 방문단 뇌교육 국제 연수 실시 _충북도교육청 '2014 파라과이 교원 초청 교육 정보화' 국제 연수	2016.6.12.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포럼' 개최 (장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회의실)
2014.5	교육부 후원 '2014 청소년 멘탈헬스 심포지엄' 개최 _뇌과학 기반 인성교육으로서 뇌교육의 효과	2016.6.27.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워크숍 개최 (장소: 통영 세자트라 숲)
2014.10.19.	뇌교육올림픽아드 IHSP0 제9회 본선 대회 개최	2016.8.2.	뇌교육올림픽아드 IHSP0 11회 국제대회 개최 (장소: 미국 뉴욕)
2015.3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중일 개발 협력과 글로벌 CSR 포럼' 참가	2016.8.3.	유엔 'Youth Mental Wellbeing Conference' 참가 (장소: 뉴욕 UN본부)
2015.3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뇌교육' 2015 뇌교육 전문가 포럼 개최	2016.8.4.	한중일 지구시민 청소년 리더십 캠프 개최 (장소: 미국 뉴욕)
2015.5	'유엔글로벌콤팩트 Korea Leaders Summit 2015' 참가	2016.9	해외 석학 초청 국제 교류 사업, 장-뇌 전문가 에머런 마이어 교수 초청
2015.7	국제뇌교육협회 산하 '지구시민교육연구회' 발족	2016.10.24	'세계시민교육 실천과 페다고지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
2015.11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세미나 개최 (장소: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2016.10.29.	지구시민 청년 아카데미 '유엔SDGs,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다' 개최
2015.12	한일 글로벌 인성영재캠프 및 한일 청소년 미래 교육포럼 개최 (제주)	2016.12.04.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라운드테이블' 개최 (장소: 천안 국학원)
2016.2	한중일 지구경영 워크숍 및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포럼 개최 (제주)	2017.1.28.	제1회 지구시민 평화 페스티벌 및 뇌교육 국제 심포지엄 개최(뉴질랜드)
2016.3	세계뇌주간 기념 전국 18개 도시 뇌교육 세미나	2017.3	세계뇌주간 기념 전국 9개 뇌교육 세미나 공동 개최
		2017.4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20 주요 이해관계자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22 중요성 분석을 통해 본 핵심 이슈

# 주요 이해관계자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국제뇌교육협회는 설립 취지에 맞춰 뇌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비영리 국제 활동에 중점을 두고 뇌교육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자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뇌교육의 가치에 공감하는 많은 후원 회원들과 뇌교육 전문 매거진 《브레인》, 분기별 IBREA Report 뉴스레터, SNS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분류

외부 이해관계자 리스트		
후원자 및 시민	개인 후원	약 2000명
	기관 후원	자문 기관 및 협력 파트너 다수
	시민	청년/청소년, 강사/교사, 학부모 등 교육 사업 참여자
자문 기관	연구·학술 기관	(재)한국뇌과학연구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사)국학원, 국제뇌교육학회, 지구경영학회 등
협력 파트너	시민사회단체	(사)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각 지역 뇌교육협회, 브레인트레이너협회, 지구시민운동연합, (사)한국뇌교육원, (사)대한국학기공협회, IBREA Japan, Earth Citizens Organization(ECO) USA 등
	기업	(주)HSP컨설팅유답, (주)비알뇌교육, (주)키즈뇌교육, 브레인월드, (주)아이브레인, (주)한문화멀티미디어, (유)국제뇌교육협회인증원, Brain Power Wellness USA, U-DAP Solution China 등
UN 관련 기구		유엔공보국(UN-DPI), 유네스코(UNESCO),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등



# 중요성 분석을 통해 본 핵심 이슈

국제뇌교육협회가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슈 분석을 위해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 조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보고 핵심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 명확한 고유 목적(미션)과 비전

국제뇌교육협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는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명확한 이해와 지속적인 지지입니다. 설문 5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뇌교육협회의 미션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커뮤니케이션 중점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 뇌교육의 사회적 임팩트를 높이기 위해 국제뇌교육협회가 강화해야 할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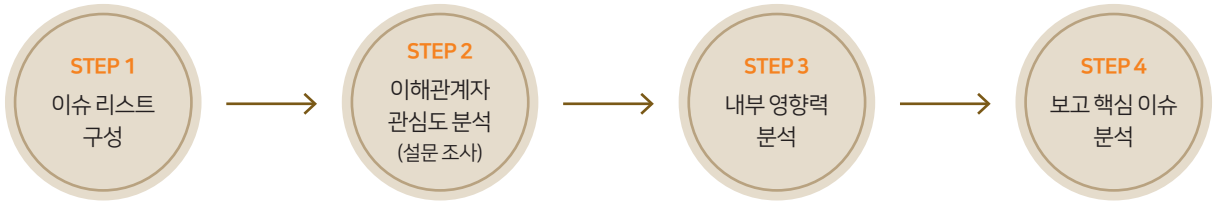


## 분석, 평가, 향후 과제

서술형으로 제시된 이해관계자들의 답변을 범주화/빈도 분석을 통해 조직의 미션 체계와 비교했습니다. 응답자의 답변은 국제뇌교육협회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뇌교육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뇌교육협회 고유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 뇌교육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뇌교육 관련 기관들의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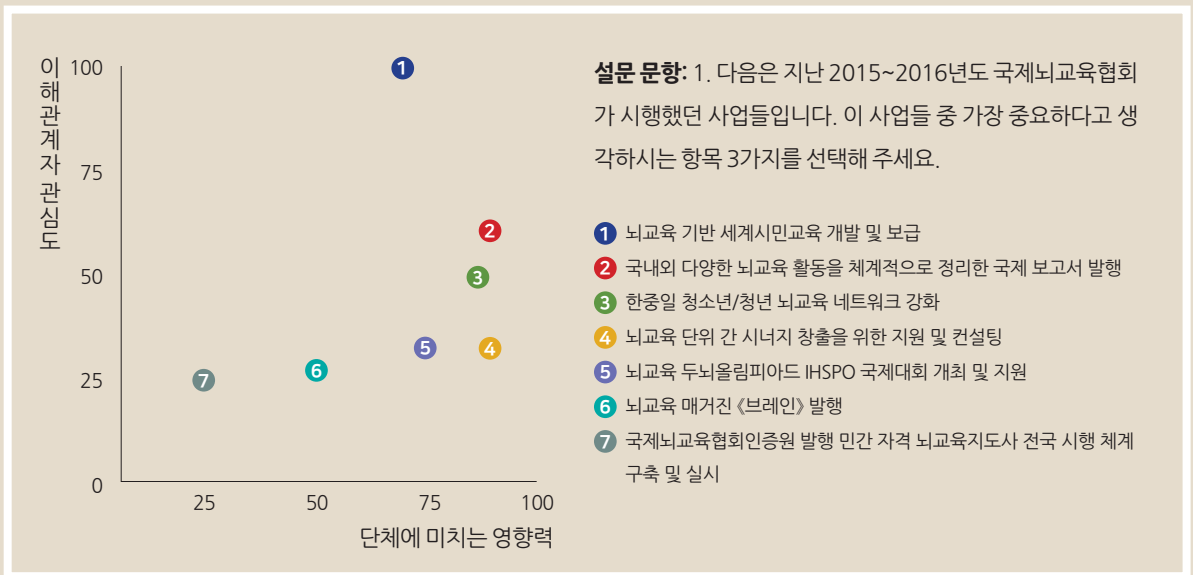


보고 핵심 이슈 분석 프로세스



설문 조사 개요 ① 조사 방법: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활용 설문 ② 조사 기간: 2016년 10월 4일~31일 ③ 조사 대상: 협회 핵심 이해관계자 383명  
 응답자 분석 ① 내부 이해관계자 18명 : 이사회 13명 / 임직원 5명 ② 외부 이해관계자 365명

현재 사업의 중요도



분석, 평가, 향후 과제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개발 및 보급, 뇌교육 국제 보고서 발행, 한중일 청소년·청년 네트워크 강화 등 국제뇌교육협회가 최근 2년간 새롭게 시작해 진행해온 사업들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개발 및 보급 사업과 다른 사업들 간의 편차가 큰 이유는 2년간 이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이며 향후 다른 사업들과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 국제대회 개최 및 <브레인> 매거진 발행에 대해 외부 관계자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뇌교육협회는 올림피아드와 <브레인> 매거진 발간 사업이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없었던 점을 감안, 이 보고서를 통해 각 사업의 취지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포괄적인 보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중·장기 사업 중요도



### 분석, 평가, 향후 과제

사회 영역별 뇌교육 원리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컨설팅, 뇌교육 글로벌 연대 강화, 뇌활용의 중요성과 가치 증진을 위한 정보 확산 3가지 사업 영역이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서 가장 중요성이 높은 사업 영역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위에 있어서 외부 이해관계자는 국내외 뇌교육 정보 제공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고 내부 이해관계자는 컨설팅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정보 흐름의 관점에서 국제뇌교육협회의 좀 더 적극적인 행동과 정기적인 헌신이 필요한 국내외 뇌교육 정보 제공 측면에 좀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때 국내 뇌교육 기관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요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3가지 사업 영역에 대해 보고 기간 내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 1. 뇌교육 글로벌 연대
  - 아시아 청년 국제 교류 프로젝트
  - 제1회 지구시민 평화페스티벌
  - 뇌교육 두뇌올림피아드 IHSP0
- 2. 뇌교육 융합 컨설팅
  - 뇌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연계 방안 연구 협력
  - '지구시민교육' 세미나
  - 벤자민갯이어 세계시민 청년 강사 양성
- 3. 뇌교육 정보 확산
  - 세계뇌주간 전국 뇌교육 세미나
  - 《브레인》매거진 발행

##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요 이슈



### 분석, 평가, 향후 과제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처음 제기하는 주제라 모든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그중 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개의 이슈를 선정하고 각 이슈에 대한 활동 내용과 그에 대한 성과를 보고합니다. 이후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매 2년마다 보고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보고 이슈를 확장해나갈 예정입니다.

1.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모금
2. 회계 투명성
3. 후원자 관리





# 뇌교육이란

28 왜 뇌인가, 인류 미래 키워드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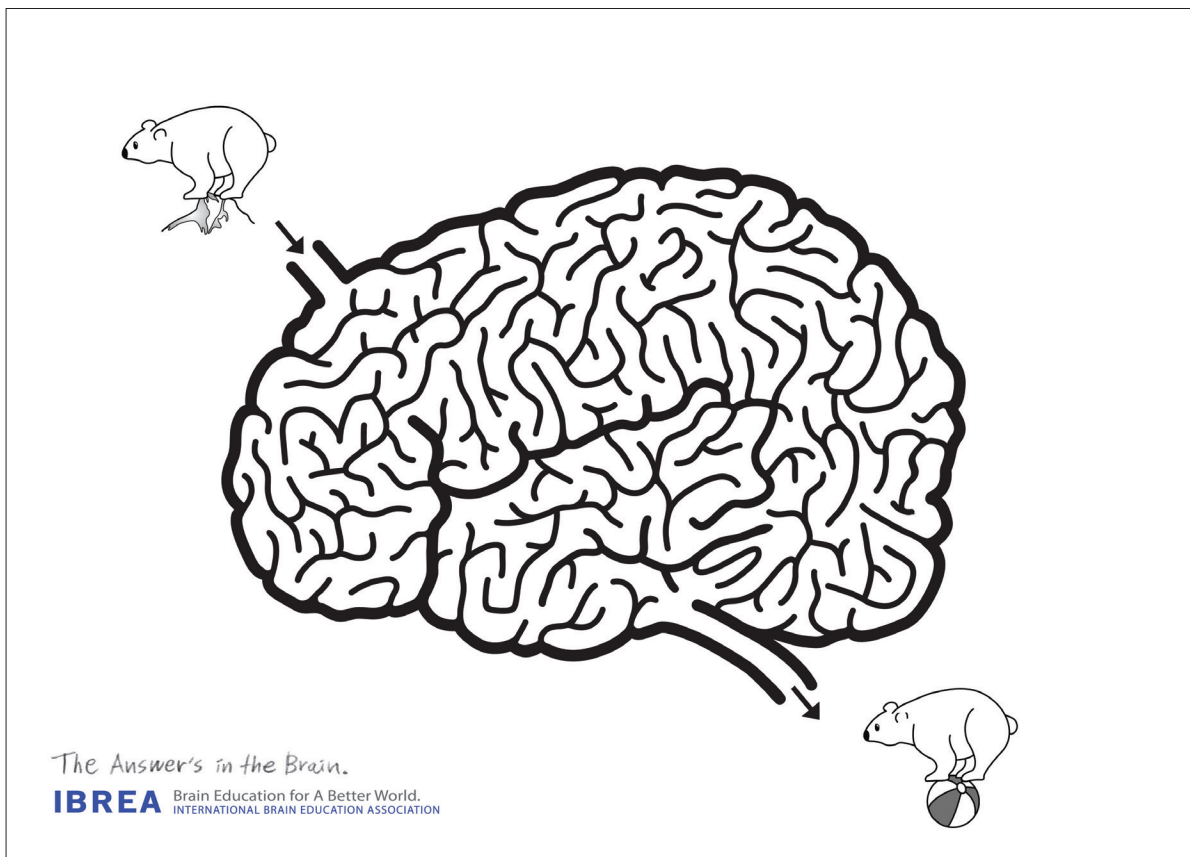
30 21세기 정보화사회, 인간 뇌에 미치는 영향은?

31 휴먼테크놀로지 뇌교육: 인공지능 시대, 자연 지능을 깨우다

32 뇌운영시스템 B.O.S

35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뇌교육

# 왜 뇌인가, 인류 미래 키워드 '뇌'



'나는 나의 뇌의 주인임을 선언합니다'

(뇌교육현장 1항)

'나는 나의 뇌가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뇌교육현장 2항)

인류와 지구의 미래는 인간이 자신의 뇌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반나절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지구 밖으로 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것 모두 뇌의 무한한 창조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 인간의 뇌만큼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존재는 없으며, 태어난 이후 이토록 많은 뇌의 변화를 거치는 존재 역시 단연코 없습니다. 지난 100년간 인류 과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뇌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뇌가소성(neuro-plasticity)'에 관한 것입니다.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라는 명제가 인간의 뇌만큼 지속적이고도 강렬하게 적용되는 대상이 없다는 데에는 놀라움과 당연함이 공존합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외부 자극에 의해 발달합니다. 태아로 있을 때부터 끊임없는 외부 자극을 받으며 뇌는 복잡한 신경회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이후에는 외부 자극이 더욱 커집니다. 태어나는 순간 300~400g에 불과한 태아의 뇌는 성인이 되면 3~4배까지 증가하는 것은 지구상 생명체 중에 유독 인간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동물은 유전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의 뇌는 유전과 환경의 조합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방바닥을 기어다니다거나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걸음마는 두뇌 운동 영역을 발달시키고, 소리를 내어 책을 읽으며 말을 배우는 동안에는 언어 영역이 발달합니다.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만지작거리는 동작은 뇌 속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손의 다양한 감각을 발달시킵니다.

인간 뇌의 발달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학습'은 인간 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며,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상상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로 대표되는 내면 탐색 또한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입니다.

뇌를 가진 다른 척추동물들은 시간이 흘러도 주변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지만, 인간은 머릿속에 떠올린 상상을 현실로 이뤄내는 창조적 능력으로 인해 시간의 흐름 자체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뇌 가소성의 범위와 본질 자체

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인류 문명의 발달을 이끈 것이 뇌의 창조성 이듯, 당연한 인류 위기를 해결할 열쇠 또한 인간의 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를 '뇌의 세기(Century of the Brain)'라 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과학의 마지막 영역이라 불리는 뇌 연구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인간 활동의 총사령탑인 뇌에 대한 연구에는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 인지과학, 심리학 등 모든 분야가 함께 융합돼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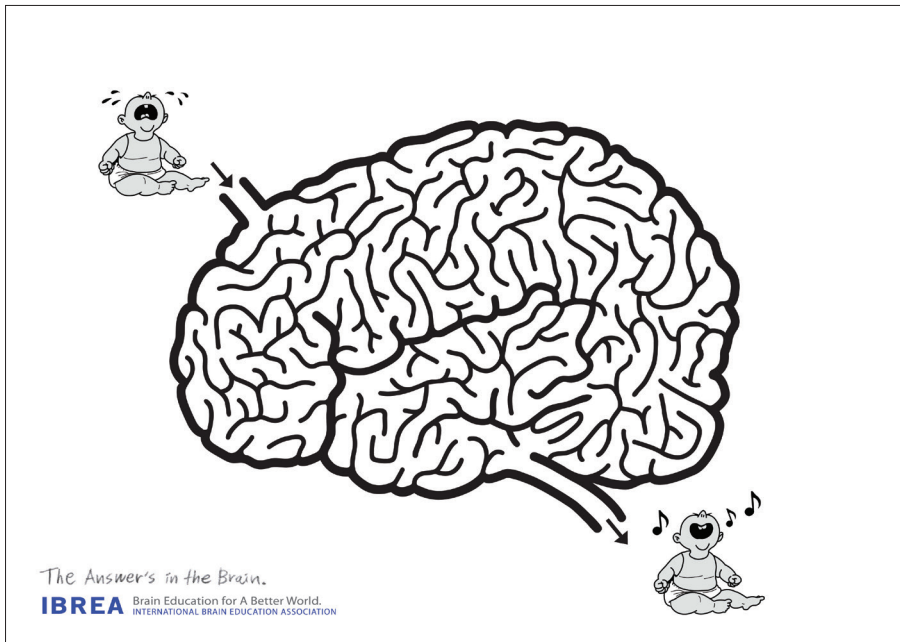
인간의 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건강,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뇌에 대한 인식이 넓혀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뇌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탐구가 밝혀내고 있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활용과 계발입니다.

21세기 인류는 인간 뇌의 신비를 탐구하고 있지만, 인간의 의식은 너무나 크고, 넓고, 깊습니다. 뇌를 생물학적인 대상 너머 변화의 존재로 인식할 때 인간 뇌의 근본 가치에 대한 진실한 접근이 이뤄지며 밖이 아닌 내면으로의 탐색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류 모두가 원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열쇠가 우리의 뇌 속에 있음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뇌교육(brain education)'은 '두뇌 사용 설명서'이며, 누구나가 가진 뇌를 이해하고, 알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기술이자 학문입니다. 21세기 뇌융합시대를 맞아 뇌 관련 제반 지식을 활용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자각하고 삶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철학, 원리, 방법을 연구하는 융·복합적 학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뇌기반 교육(brain-based education), 신경교육(neuro-education) 그리고 신경건축학(neuro-architecture)도 뇌 융합학문의 일종입니다. 한국은 뇌교육 분야 4년제 학사, 석·박사 학위과정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구축했으며, 2009년 두뇌 훈련분야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증을 국가 공인화 하며 뇌 융합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구축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사회, 인간 뇌에 미치는 영향은?



### ‘나의 뇌는 정보와 지식을 선택하는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뇌교육헌장 3항)

지속가능한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뇌’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20세기 컴퓨터 혁명으로 시작된 인류 문명이 21세기 스마트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연결된 ‘정보화사회’로의 본격적인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뇌’는 정보를 입력받아, 처리해서, 출력하는 정보처리 기관입니다. 인간의 뇌 차원에서 21세기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은 ‘정보’ 자체가 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 자체가 과거에 비해 수백 배 증가했고, 정보 전달 속도와 확산이 지구 전체에 거의 동시시간대에 이뤄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속에서 ‘정보’가 새로운 문명의 키워드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 뇌가 자리할 것입니다. 정보가 물질을 창조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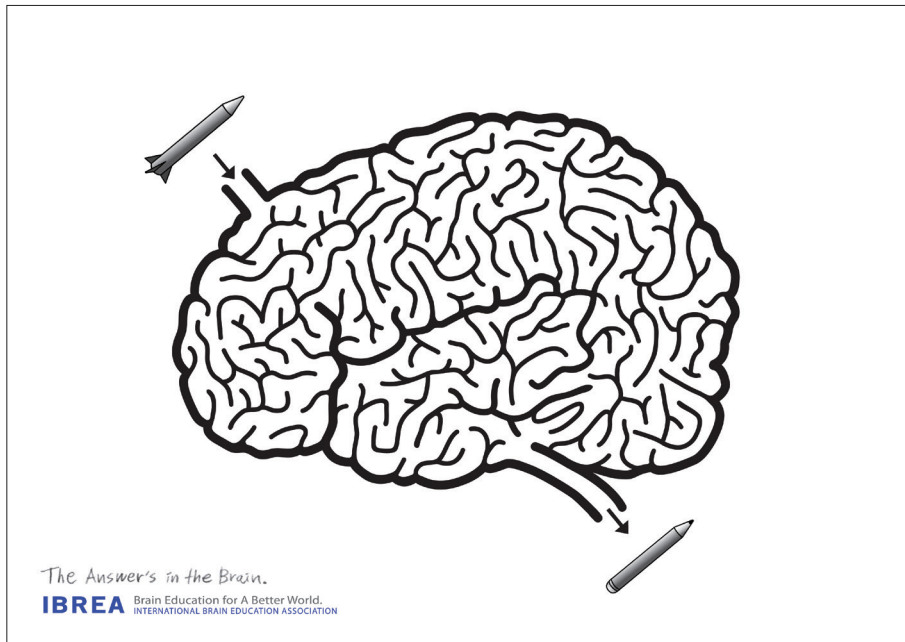
세상 속에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가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뇌 속에 담긴 정보의 질과 양이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 뇌의 근본 가치에 대한 자각 그리고 올바른 활용과 계발입니다. 인간의 뇌는 뇌 가소성의 원리에 따라 훈련하면 끊임없이 성장하는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계발하는 목적, 즉 방향성을 상실한 뇌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간 의식의 확장과 진화라는 관점에서 궁극적인 뇌 활용의 목적은 글로벌 휴먼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 즉 인간다움의 가치를 자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교육은 언어와 인종, 지식의 수준과 상관없이 뇌를 가진 누구나 평화 철학과 두뇌 발달 원리 체계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적 방법론을 갖추고 있습니다. 뇌교육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 혹은 방법이라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민족의 평화 철학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양성하는 인간완성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휴먼테크놀로지 뇌교육



### '나의 뇌는 인간과 지구를 사랑함을 선언합니다'

(뇌교육헌장 4항)

### '나의 뇌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추구함을 선언합니다'

(뇌교육헌장 5항)

인류 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며 일부는 경외감을, 일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만든 것도 결국 인간 뇌의 창조적 산물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아닌 자연 지능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인간은 자연 지능을 가진 존재이고, 그것은 생명력을 느끼고 회복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뇌교육은 평화 철학, 두뇌 발달 원리, 체험적 교육 방법론을 갖추고, 자연 지능을 깨우는 원리와 방법을 제공합니다. 인간 뇌 속에 내재된 인성을 회복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평화 기술 (peace technology)'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뇌의 올바른 활용입니다. 누구나 뇌를 가지고 있지만, 뇌를 운영하는 원리와 방법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누구나 두뇌 계발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 실현을 통해서 자기 계발을 하고, 인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뇌교육을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는 이런 과정에서 무한한 창조성이 발현됩니다.

뇌를 더 이상 어렵거나 다가갈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친근하면서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의 뇌 가능성을 믿기 시작할 때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뇌를 과학적인 연구 대상만이 아닌 활용의 대상으로 인지할 때, 인류 모두가 원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열쇠가 우리의 뇌 속에 있음을 자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교육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휴먼테크놀로지 (HT, Human Technology)입니다.

## 뇌교육 원천 기술 : 뇌운영시스템 B.O.S (Brain Operating System)

### # 뇌 안에 답이 있다

B.O.S, '뇌운영시스템'을 뜻하는 'Brain Operating System'의 약어. 21세기 뇌 융합 시대를 맞아 뇌교육(Brain Education)의 핵심 원천기술로도 알려져 있으며, 인간 뇌의 근본 가치에 대한 깊은 탐구를 바탕으로 한 두뇌 발달 원리와 과학적 체계에 따른 5단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뇌운영시스템 BOS가 갖는 시대적 가치는 20세기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인류 문명의 상징이라는 '컴퓨터'가 갖는 한계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컴퓨터 운영시스템(OS)은 0과 1의 조합으로 모든 디지털기기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인간 생활의 편리성과 정신적 가치는 동행하지 못하고 거꾸로 멀어져만 갔다.

오늘날 인류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 인간 뇌의 창조성에서 비롯됐듯, 당연한 인류 문제 해결의 열쇠도 결국 뇌 안에 있다. 현실은 뇌가 그린 삶의 투영물이며, 오늘은 '창조'와 '평화'라는 인간 뇌의 두 수레바퀴 중 하나만을 강조하며 걸어온 시간의 결과물일 따름이다. 누구나가 가진 뇌를 잘못 인식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20세기 컴퓨터 운영시스템 OS가 인간 생활의 편리를 가져왔다면, 21세기 뇌운영시스템 BOS는 잃어버린 인간 뇌의 근본 가치를 회복하는 해법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BOS는 인간 삶의 가치를 높이는 '휴먼테크놀로지(Human Technology, HT)'의 원천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 뇌를 바라보는 3가지 차원

BOS(뇌운영시스템)가 제시하는 뇌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는 뇌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이다. 지금까지 뇌를 바라보는 기존 사고의 틀을 깨고 보다 큰 차원에서 인간 몸을 정의함으로써, 몸을 움직이는 총사령탑인 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함이다. 뇌를 운영하기 위해선 눈에 보이는 차원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차원의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3가지 차원에서 존재한다. 즉, 눈에 보이는 물질적 차원의 육체(Physical Body), 에너지 차원의 에너지체(Energy Body), 의식 차원의 정보체(Spiritual Body)가 그것이다. 뇌는 두개골 안의 복잡한 시스템이 아닌, 수많은 신경세포가 시냅스를 통해 네트워크화 되고 그것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인간의 뇌는 신체 중에서 물질이면서 정신을 담은 유일한 곳이며,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함께 운영되고 시시각각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이다.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할 수 있지만, 뇌는 구분선이 없다. 뇌에 정보가 입력되면 뇌 회로, 즉 시냅스 자체가 변화하면서 하드웨어도 동시에 변화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입력과 처리, 출력의 과정이 뇌 회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그 축적된 정보가 현재

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뇌를 구성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셈이다. 그 깨달음의 자각과 체득화의 과정이 뇌운영시스템(BOS) 5단계의 과정에 녹아 들어간다.

### # 뇌운영시스템 5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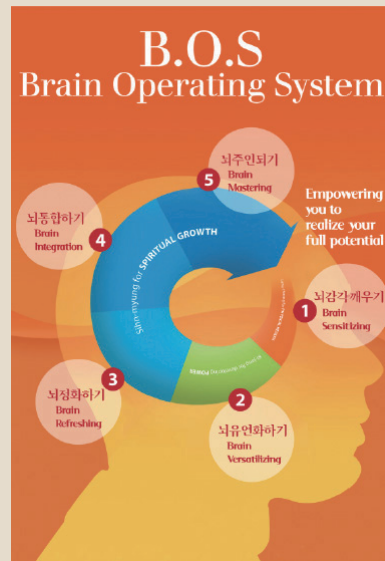
뇌의 구조와 기능 차원에서 보자면, BOS의 개발은 크게 3층 구조로 이뤄진 뇌의 기능들을 한 단계씩 활성화하고 회복해가는 것에 있다. '활성화 한다'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고, '회복한다'는 것은 그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벽들을 깨뜨린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 과정에서 뇌의 각 부분의 기능들이 통합되면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뇌 운영 프로그램은 뇌의 기능과 통합 과정에 따라 크게 다섯 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 뇌 감각 깨우기(Brain Sensitizing), 2단계 뇌 유연화하기(Brain Versatilizing), 3단계 뇌정화하기(Brain Refreshing), 4단계 뇌 통합하기(Brain Integrating), 5단계 뇌 주인되기(Brain Mastering)이다.

1단계 뇌 감각 깨우기는 누구나 가진 뇌에 존재하는 뇌운영시스템(BOS)을 자각하는 단계이다. 보통 사람들은 '뇌'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간다. 뇌를 운영한다는 생각은 더욱 생소한 얘기일 수 있다. 마치 컴퓨터를 쓰는 것이 너무 일상화돼 컴퓨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자각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컴퓨터 운영시스템의 존재와 그 정보를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그 운영시스템을 제대로 쓸 수 있다면 어떻게 변화할까. 그래서 1단계 뇌 감각 깨우기에서는 몸과 뇌의 연결 고리를 회복함으로써, 뇌 감각을 깨우는 원리와 방법을 알려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뇌를 구성하는 육체, 에너지체, 정보체 3가지 차원에서의 감각을 깨우게 된다. 감각 회복이 이뤄지면 자신의 뇌상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단계 뇌 유연화기에서는 '의식'과 '몸'이 서로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정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주인으로서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것을 통해 의식이 확장되고 파워가 강화돼 뇌를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이 형성된다. 그렇게 형성된 파워는 3단계 뇌 안에 깊게 자리한 부정적 정보를 정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1, 2단계를 거치면 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심신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만 뇌를 근본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한다. 살아오면서 형성된 많은 피해의식 등의 부정적 정보가 뇌 속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바이러스로 오염되면 컴퓨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3단계 뇌 정화하기는 슬한 고정관념과 선입견, 피해의식 등을 하나씩 걷어내어 본래의 '자아(自我)'를 만나는 과정이다. 부정적 정보를 정화하고 뇌의 본래 상태를 회복하는 BOS의 핵심 단계이기도 하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단계,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것'임을 체험하는 과정이며, 순수한 상태의 뇌를 회복함으로써 통합적인 뇌 기능의 발현을 가져올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1~3단계에서 이뤄지는 뇌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자각, 뇌의 유연성 회복, 부정적 정보의 정화는 뇌 기능을 온전히 발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그로부터 다양한 뇌의 기능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4단계 뇌 통합하기는 편향적인 뇌 기능의 사용을 조화롭게 하고, 억눌렀던 감정 중추의 기능을 자유로이 조절하도록 한다. 수많은 고정관념과 피해의식으로 남아 있던 부정적 정보들을 걷어내고, 위축되어가는 뇌간의 생명 중추 기능을 되돌려 인간 뇌가 가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뇌의 잠재된 기능들이 발현되기도 한다.

마지막 5단계는 바로 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과정이다. 4단계까지가 운전면허증을 따는 과정이었다면, 5단계는 실제 운전을 하며 체움·체득화 하는 단계이다. 현실 속에서 자신의 뇌를 운영해가면서 매일매일 뇌를 관리하고 체크하며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5단계에서는 통합된 뇌의 창조력을 100% 활용하는 좋은 정보, 즉 비전이 필요하다. 뇌를 움직이게 하는 비전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오해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료할수록 좋다. 뇌는 방향성이 있을 때 움직이는 대표적인 복합계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창조가 일어나며, BOS가 뇌 속 깊숙히 자리하게 된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뇌교육



국제사회가 2000년부터 15년간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추진한 새천년개발목표 중심의 국제 협력 체제는 경제성장과 초등 교육 확산 등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환경 파괴의 가속화, 부의 양극화,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한 평화의 위협 등으로 인해 지나친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경, 사회,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2016년부터 15년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협력’의 5가지 영역에서 17개의 목표로 이뤄진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누구도 발전으로부터 경제적 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사회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공동의 미래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세대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함에 있어 모든 생명의 토대가 되는 지구에 대한 존중과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 내에서 이뤄질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지향하는 변화의 포괄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 전 부문의 변화와 참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변화의 원동력으로써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인 동시에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부모는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는 숙련되고 교육받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빈곤 극복과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십, 리더십, 그리고 교육에 대한 현명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삶과 국가 경제, 그리고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교육이 지식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세계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창조하는 주체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면의 정보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뇌교육은 육체로서, 에너지체로서, 그리고 정보체로서의 뇌의 가능성과 창조적 능력에 대한 직접적 체험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가 확장돼 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운영시스템 5단계를 거치면서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열망과 자신감을 내면에서 발견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뇌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접목해온 건강과 교육 영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3 GOOD HEALTH AND WELL-BEING

## 건강 증진과 뇌교육

**목표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세부 이행 목표로 전염병 예방, 산모·영유아 건강 증진 등 기존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로 추진해 온 과제와 더불어 그동안 선진국에서 주로 문제가됐던 비전염성 질환 예방과 멘탈 헬스 증진을 위한 목표들이 추가됐습니다. 비전염성 질환 예방이나 멘탈 헬스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긍정적 선택과 행동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뇌교육은 본래 인간 뇌가 가진 자연의 감각을 회복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몸을 이완시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두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한 뇌체조,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강한 뇌파 형성에 개입하는 뇌파진동, 장-뇌 커넥션에 관한 최근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신체적 건강과 멘탈 헬스를 동시에 관리하도록 하는 배꼽힐링 등은 모두 뇌가 가진 본래의 감각을 회복하도록 돕는 뇌교육의 건강 차원의 교육 방법들입니다.



### 4 QUALITY EDUCATION

## 양질의 교육과 뇌교육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교육은 지식과 기술 습득의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내재돼 있는 가능성을 계발하고 그 가능성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뇌교육 두뇌올림피아드 IHSP(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는 한 분야의 지식 평가가 아닌 통합적인 두뇌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올림피아드로, 인간의 뇌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인류가 원하는 건강, 행복, 평화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뇌의 올바른 활용에 있음을 알리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뇌교육은 7번째 세부 목표로 명시한 평화와 비폭력 문화, 세계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종과 언어, 교육적 이해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진 뇌의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평화 철학, 두뇌 발달 원리, 체험적 교육 방법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 뇌 선언문 ]

2001년 6월 15일 '인간, 지구, 뇌'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서 열린 제1회 휴머니티 콘퍼런스에 전 세계의 석학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승헌 협회장을 비롯해 엘 고어, 헤나 스트롱 등 세계의 석학들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지구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전제하는 이 지구인 선언문을 통해 뇌교육의 철학적 바탕이 공식화됐고, 이 선언문은 나중에 뇌 선언문으로 발전했습니다.



나는 내 뇌의 주인임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I am the master of my brain.

나는 나의 뇌가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my brain has infinite possibilities and creative potential.

나의 뇌는 정보와 지식을 선택하는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my brain has the right to accept or refuse any information and knowledge that it is offered.

나의 뇌는 인간과 지구를 사랑함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my brain loves humanity and the earth.

나의 뇌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추구함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my brain desires peace.

**Take Back Your Brain!**





# VI

## 사업 보고

### 40 한눈에 보는 2015~2016 사업 성과

#### 42 뇌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 42 아시아 청년 국제 교류 프로젝트
- 54 제1회 지구시민 평화 페스티벌
- 58 뇌교육 두뇌올림피아드 IHSPO

#### 68 뇌교육 융합 컨설팅

- 68 뇌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연계 방안 연구 협력
  - 82 지구시민교육 세미나
- 86 벤자민괘이어 세계시민 청년 강사 양성

#### 90 뇌교육 정보 확산

- 90 세계뇌주간 뇌교육 세미나
- 92 《브레인》매거진 발행

# 한눈에 보는 2015~2016 사업 성과

4회  
324명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심화 워크숍



국제뇌교육협회는 2015년 이후 15년간 글로벌 교육 트렌드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과 미래 교육 대안으로 주목받는 뇌교육의 시너지 모색을 위해 '지구

시민교육연구회'를 발족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2016년 한 해 동안 4회에 걸쳐 총 342명의 교사와 강사들이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서 조절과 인성교육 위주의 뇌교육 프로그램을 시민교육으로 확장, 체계화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62개 학교  
6,481명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학생 교육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심화 워크숍을 이수한 교사와 강사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62개 학교에서 총 6481명의 학생을 만났습니다. 6차시

이상의 한 학기 커리큘럼을 운영한 곳이 28개 학교, 2~3시간의 특강을 제공한 곳이 34개 학교였습니다. 신체 활동과 성찰 활동 등 뇌교육의 체험 중심 교수 학습 방법이 세계시민의식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2명 

## 한중일 청년 네트워크



한중일 3국 청년 세대의 평화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21세기에 국제뇌교육협회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국제 교류 프로젝트를 진

행해 112명의 한중일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청년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행동할 것, 그리고 함께 연대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14개

## 지구시민교육 세미나



<제66차 유엔NGO콘퍼런스 : 세계시민교육> 한국 개최를 기념하고 국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14개

도시에서 지구시민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며 한국 사회에 세계시민교육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 1100명

## 뇌교육 두뇌올림피아드 IHSPQ 국제대회



2015년 10회, 2016년 12회 IHSPQ 국제대회에는 총 1100여 명의 참가자가 출전해 두뇌 활용 능력을 겨뤘습니다. 2005년 인간 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자 창설된 IHSPQ는 지식 평가가 아닌 두뇌 활용 능력을 평가해 인간 뇌의 무한한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알려왔습니다. 2016년에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계의 원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인류 미래를 위한 뇌 활용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100만부 650곳



##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 발행



국제뇌교육협회는 설립 목적에 따른 뇌교육 가치 확산을 위해 한국뇌과학연구원과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을 공동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 저문, 협력 기관 및 후원 회원들에게 협회

지로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 내 650개 공공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에 디지털 잡지 형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브레인미디어(www.brainmedia.co.kr)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 포털 뉴스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사를 게재해 연간 100만 건 이상의 기사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 3회 52명

## 세계시민 청년강사 워크숍



지역사회 청년 리더십 강화를 위해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공동 주최로 마련한 세계시민 청년강사 워크숍으로, 전국에서 3회에 걸쳐 52명의 청년 강사를

배출했습니다. 이 청년 강사들은 열정 넘치는 에너지로 전국에서 643명의 청소년들을 만나 함께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의 가치관을 나눴습니다.

# 41곳

## 세계뇌주간 기념 뇌교육 세미나



세계뇌주간은 일반인들에게 인간 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뇌연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

회는 매년 3월 세계뇌주간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뇌교육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41곳에서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 뇌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 아시아 청년 국제 교류 프로젝트



기후변화, 빈부 격차의 심화, 극단적 테러리즘과 평화의 위협 등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과제 해결의 핵심 주제로 국제사회는 청년의 열정과 순수함, 창의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를 위한 선택과 실천의 근간이 되는 가치관의 변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 변화 등, 인간 삶의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정치·경제적 시스템과 소수의 리더십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청년들의 리더십이 문제 해결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국은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현재 첨예한 정치적·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평화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국제뇌교육협회는 3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류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국제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뇌교육을 통해 변화의 주체로서 자신감을 고취하고, '지구'와 '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상호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1 제주 한중일 지구경영 워크숍

청년, 뇌, 그리고 지구 Youth, Brain and the Earth



2015년 12월,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한 지 18년 만에 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기후변화협약 (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습니다. ‘평화의 섬’ 제

주에서 열린 <한중일 지구경영 워크숍>은 한중일 청년들과 함께 2020년 발효 예정인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뇌교육을 통해 지구시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지구’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체험하는 명상 수련, 개인의 의식 변화와 생활 속에서의 실천으로 지구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지구시민 프로젝트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설 픽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변화와 실천, 그리고 개인들의 연대를 통해 창조하고 싶은 지구의 미래를 함께 자유롭게 상상하고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시** | 2016. 2. 17 ~ 21

**장소** | 제주힐링명상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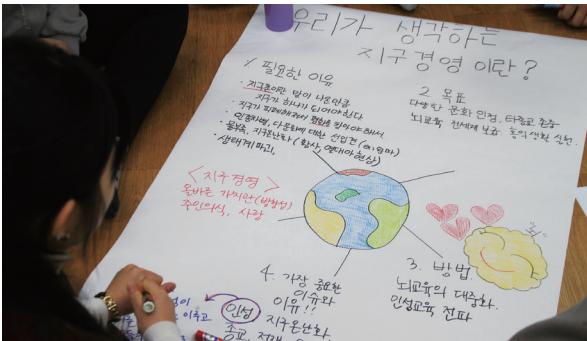
**참가** | 한중일 청년 26명

**주최** | 국제뇌교육협회, 지구시민운동연합

**주관** | 제주뇌교육협회

**프로그램**

날짜	내용
2.17	오리엔테이션 21세기 지구의 문제 이슈 나무 그리기 호흡명상, 에너지로 소통하기
2.18	제주의 자연 속에서 지구명상 [강의]인간 뇌의 창조성과 방향성, 인류 미래의 답은 뇌에 있다 [소설 픽션]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변화
2.19	지구경영도 내 몸의 경영에서 시작된다 ‘힐링 무에 단무도 익히기’ 제주 올레길 탐방 ‘올레길에서 만난 나, 나는 OOO이다’ [강의]사단법인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성공의 열쇠는 가슴 뛰는 비전’ [강의]나는 누구인가?
2.20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포럼 참가
2.21	국궁 비전명상, 마무리



### 참가자 나눔

“무엇보다 정부가 아니라 한중일의 젊은이들이 지구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같은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많은 의견을 교환하며 교류한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나카하기, 일본**

“뇌교육의 핵심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였고 어떻게 지구 환경을 회복할지 알 수 있었다. ‘지구경영자’라는 이름 자체가 동기부여가 된다.” **주혜, 중국**

“나무를 보면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뻗어 나가듯, 나라가 다를 뿐 그 뿌리는 하나라는 것을 느꼈다. 나라마다 서로 다르기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 공통점은 지구와 함께한다는 것이다. 워크숍 기간 동안 뇌교육 명상을 하면서, 나라마다 저마다의 역사가 있듯이 역사는 옳고 그름이 없고 서로서로 존중하면 지구상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비비, 중국**

“평소 지구시민이나 환경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식이 커지고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볼 수 있어 좋았다. **박지혜, 한국**

“환경에 관심은 많았지만 고등학생일 때는 이런 걸 고민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구가 없었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번 워크숍에서 지구 환경에 대해 뜨겁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어 무척 뜻깊었습니다. **노지향, 한국**

“이번 워크숍을 통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다. 셋째 날 올레길을 걸으며 그 순간에 집중할 때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각과 변화가 일어나는지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양원, 중국**

**#2**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포럼**



‘청년, 뇌 그리고 지구(Youth, Brain and the Earth)’라는 슬로건 아래 5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지구경영 워크숍>의 일환으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포럼(Korea-China-Japan Earth Citizen Youth Forum)>을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펼친 ‘Upgrade Your World Campaign’ TOP 5에 선정된 비영리 국제단체인 미국 지구시민연합(ECO USA) 스티브 김 이사의 글로벌 지구시민 프로젝트 <ICARE 2020>에 대한 영상 강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한중일 국가별 ‘지구시민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한중일 연대를 통한 지구경영’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3부는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을 넘어 ‘지구경영’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한중일 3국 청년들의 지구시민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시** | 2016. 2. 20

**장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주최** | 국제뇌교육협회, 지구시민운동연합

**주관** | 제주뇌교육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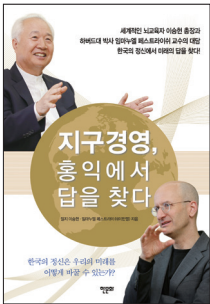
**프로그램**

<p><b>1부</b></p>	<p><b>글로벌 지구시민 프로젝트 ICARE 2020</b> 미국 지구시민연합(ECO USA), 스티브 김 이사 강연</p> <p><b>국가별 참가 기관 ‘지구시민 프로젝트’ 전개 상황 브리핑</b> 국제뇌교육협회, 일본 지구시민청년연합(YECO Japan), 한국 지구시민청년연합(YECO Korea), (주)화이트홀, U-DAP Solution China</p>
<p><b>2부</b></p>	<p><b>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중일 정신문화의 가치와 청년의 역할</b>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 강연</p>
<p><b>3부</b></p>	<p><b>지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변화, 그리고 청년의 액션</b> 개인별 ‘지구시민 프로젝트’ 발표 및 토론</p>

# SPECIAL LECTURER



## Emanuel Pastreich



포럼에는 베스트셀러 《지구경영, 흥익에서 답을 찾다》의 저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 경희대 교수가 특별 강연자로 나서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최근 동북아 상황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기후변화, 빈부 격차, 건전한 사회 건설 등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냉전시대 방식을 갖고 전쟁까지 염두하는 사람이 있다. 심각한 정치와 국제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치인, 대기업의 회장이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면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했습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포럼 전날에도 한중일 청년들의 워크숍 장소를 방문해 청년들의 발표를 듣고, 격의 없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즐거운 만남을 마친 후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워크숍을 주최한 국제뇌교육협회 관계자들에게 “한중일 청년들이 이렇게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세상을 바꾸는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이 정도 인원으로도, 멤버들로 시작하면 된다.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으니 지속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라며 깊은 공감을 전했습니다.





**#3**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클럽 결성**

2016년 2월 제주에서 열린 <한중일 지구경영 청년 워크숍>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화상으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은 '지구의 날'을 기념해 4월 26일 화이트홀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했습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와 김나옥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교장이 멘토로 참석했고, 2월 워크숍에 참석한 청년들의 지구시민 실천 사례 발표와 멘토링으로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모임에서 '청년, 뇌, 지구'를 슬로건으로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클럽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평화,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 청년 스스로 자신의 꿈과 가치를 찾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구시민교육 프로젝트를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제66차 유엔 NGO콘퍼런스 참가,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워크숍 참가,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 워크숍 개최 등 활발한 지구시민 청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시** | 2016. 4. 26

**장소** | 화이트홀 오피스

**참가** | (한국) 한중일 지구경영 워크숍 참가자, 벤자민갭이어, 한국 지구시민청년연합 (일본) 일본벤자민갭이어, 일본YECO

**후원** | 지구시민운동연합 화이트홀

**참가자 나눔**

“지구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변화다. 일회 용품을 쓰지 않고 차 운전도 줄였다.” 박성민, 한국

“한중일 멤버들을 다시 만나는 동안 가슴 깊이 행복함과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영혼으로 강하게 연결돼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지구시민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욱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입니다.” 주혜, 중국

“직장 동료들과 ‘잔반 남기지 않기’를 실천했다. 누구나 인식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상반기에 지구시민강사 교육을 받아야겠다.” 박지혜, 한국

“비록 모니터를 통해서였지만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캠프 이후 여러분의 활동을 알게 됐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마누엘 교수님의 말씀과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지구시민 파이팅!” 다나카하기, 일본

“지난 2월에 참가한 워크숍에서 만난 동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모두의 활동 나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자극받았습니다. 또 한중일의 우리 청년들이 지구를 위해 프로젝트를 계속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시이 무즈미, 일본

## #4

##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 워크숍



### 지구의식으로 업그레이드하라!

한중일 지구시민청년클럽은 첫 프로젝트로 UN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 도시인 통영시 세자트라 숲에서 '지구의식으로 업그레이드하라!'라는 주제로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청년 세계시민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했습니다.

한중일 문화 속에 담긴 평화 코드에 대한 토론과 아름다운 통영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 별빛명상, '내 몸의 건강, 내 몸의 평화' 체험을 위한 배꼽힐링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워크숍 한국 참가단에는 벤자민갭이어 청년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이후 벤자민갭이어와 국제뇌교육협회 공동 주최의 <벤자민갭이어 세계시민 청년 봉사 워크숍>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벤자민갭이어는 고교 최초 완전 자유학년제이자 미래형 학교로 유명한 벤자민인성재학교가 20대 청년들을 위해 개설한 인생 설계 프로젝트.)

또래가 진행하는 교육을 참가하는 경험이 청년들에게 '나도 앞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기획과 진행을 담당할 팀에게도 사회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가치와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가** | 29명

**주최** | 한중일 지구시민청년클럽

**후원** | 국제뇌교육협회

**장소** | 통영RCE 세자트라 숲 (통영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 도시)

**일시** | 2016. 6. 24~25 (1박 2일)





### 참가자 나눔

“평화를 품고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에 놀랍고 뿌듯했습니다. 나라도, 나이도, 언어도 모두 다르지만 지구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마음을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주최한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청년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지구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더욱 더 많아진다면 지구 평화 경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별빛 명상을 하는데, 풀내음, 벌레소리 그 외에 여러 소리와 향을 맡으면서 ‘이 지구와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을 가리고 얼싸안을 때 서로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누워서 자연을 느낄 때 내 자신이 자연과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

## 한일 청소년 국제 교류 네트워크



국내 고교 최초 완전 자유학년제이자 21세기형 미래 교육의 모델 학교로 주목받고 있는 벤자민인성영재학교의 일본 개교를 앞두고 한일 청소년 간의 교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2015년 12월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한일 청소년 교류를 위한 <한일 청소년 글로벌 인성영재캠프>와 <한일 청소년 미래교육포럼>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이후 한일 벤자민인성영재학교와 학생 간의 활발한 교류 활동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놀며, 소통하며,  
상상하는 우리의 미래”

### 한일 청소년 글로벌 인성영재캠프

한일 청소년 글로벌 인성영재캠프는 언어와 국가를 초월해 지구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체험하고 글로벌 인성영재로서의 자신감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팀별 게임과 체력 단련, 한일 댄스 배우기, 제주 올레길 10코스 포스트 게임, 자연 명상, 문화 교류, 멘토 특강, 미래 교육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를 배경으로 뮤직비디오 만들기, 전통 의상인 한복과 기모노를 입고 제주 시민과 프리허그(free hug) 하기 등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미래의 학교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소설 픽션 방식의 토론은, 미래 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공통된 바람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를 넓혀주었습니다. 토론의 결과물은 캠프 기간 중 열린 <한일 청소년 미래교육포럼>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간** | 2015. 12. 26~30 (4박 5일)

**주최** | IBREA, 일본 지구시민학교,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주관** | 지구시민운동연합, 제주뇌교육협회

**참가** | 벤자민인성영재학교 한국, 일본 학생 등 36명

**프로그램**

날짜	내용
12.26	<p><b>놀면서 친해지기</b>                      제주도 투어 및 레크리에이션                      자기 성찰의 시간 : 캠프를 통해 얻고 싶은 것</p>
12.27	<p><b>내 안의 자신감 찾기</b>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등반  <b>함께 살아가는 세상</b>                      한일 학생 짝을 지어 도전 과제 수행하기                      문화 교류의 밤 : 전통문화, 음식 등 나누기</p>
12.28	<p><b>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평화의 체험</b>                      호흡, 명상, 러브 핸드 등 뇌교육 활동  <b>나는 어떤 사람일까</b>                      멘토 특강 및 멘토와의 1:1 컨설팅  <b>한일 청소년, 모든 학생이 행복한 미래의 학교를 상상하다</b>                      그룹 프로젝트 : 청소년이 바라보는 현 교육의 문제와 해결 방법 토론 및 발표</p>
12.29	<p><b>한일 청소년 미래교육포럼 '우리가 상상하는 행복한 학교' 참가</b>  <b>벤자민인성영재학교 김나옥 교장 선생님 특별 강연</b>                      뇌운영시스템((Brain Operating System, BOS)를 실천하는 지구경영 리더</p>
12.30	<p>마무리</p>



“우리가 상상하는  
행복한 행복한 학교”

**한일 청소년 미래교육포럼**

인류의 문명이 경쟁과 성공의 가치관에서 공존과 평화의 가치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청소년과 함께 고민해보고 청소년의 목소리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한일 청소년 미래교육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 앞서 열린 <한일 글로벌 인성영재캠프 - 놀며, 소통하며, 상상하는 우리의 미래>에서는 ‘학교 건물, 시험과 성적표, 의무로 배워야 할 교과목이 없다면?’이라는 영동한 질문을 상상의 출발로 제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발랄한 상상들을 이미지화했습니다.

학생들은 ‘가치와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학교’, ‘다양한 도전과 현장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학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배울 수 있는 학교’ 등 다채로운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포럼 마지막에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은 ‘지구경영선언문’ 선서를 통해, 지구촌 시대 새로운 인재상의 역할과 가치를 다짐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구경영선언문’은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교육포럼’에서 인간의 가치와 지구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글로벌리더 선언문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일시** | 2015. 12. 29

**장소** | 제주관광협회 웰컴홀

**주최** | 국제뇌교육협회,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주관** | 제주뇌교육협회, 지구시민운동연합

**후원** | 제주국학원, 제주관광협회, 무병장수테마파크, 체인지TV



## 프로그램

한일 글로벌 인성영재캠프 참가팀 공연

초청 강연 <평화의 섬 제주와 글로벌 리더의 정신> - 박효정 제주국학원 원장

초청 강연 <제주의 문화, 그 끝없는 발견> -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초청 강연 <글로벌 인성영재의 조건> - 김나옥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교장

주제 발표 <일본 대학생이 바라본 일본 교육의 현재와 미래> - 요시무라 다쿠마

학생 포럼 <우리가 상상하는 행복한 학교> - 한일 청소년 발표(5팀)

## 참가자 소감

“처음에는 ‘대화나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언어나 외모는 같이 소통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두 소중한 사람이고 지구를 위해 일하는 지구 리더가 됐습니다. 앞으로 같은 꿈을 꾸고 행복한 지구를 만들 것입니다!” 정지윤, 한국

“일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같은 지구에 사는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럼에서 발표할 때 저 자신을 믿고 긴장을 풀고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른 것 같습니다.” 조항인, 한국

“글로벌 캠프를 하기 전에는 일본에 대한 이질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캠프로 모든 것이 다 나의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서 내가 좀 더 커졌다. 청소년 미래교육포럼에서는 내가 요즘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내가 꿈꾸는 교육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나의 비전에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더 힘쓸 것이다.” 이송희, 한국

“이번 캠프에서는 친구를 믿고,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지구시민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신선하고 자극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지구시민으로서의 의식을 더욱 높이고, 미래에는 국가 간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요시무라 아이세이, 일본

“저는 자기 선언을 매우 싫어하는데, 자기 선언을 한다고 들었을 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도망갈 수는 없고, 이번엔 사람들 앞이 아닌 바다를 향한 자기 선언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외로 속이 후련해지고 몸이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니시마키 호노카, 일본

“이번 캠프는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인을 만나 저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말도 많이 걸어주어서 제가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매우 좋아졌습니다.” 다케우치 시오리, 일본

뇌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 제1회 지구시민 평화 페스티벌

## 1st Annual Earth Citizen Peace Festival



2016년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치의 괴리감 확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인해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질문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해입니다. 이에 국제뇌교육협회는 지구상 마지막 청정 지역이라 불리는 뉴질랜드에서 인간 뇌의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표현하는 '자연지능'에 대한 탐구와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미국 지구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 페스티벌에는 지구시민 평화의 문화 체험, 전 세계 10개국 지구시민들의 연대, 뇌 활용을 통해 건강·행복·평화의 자급자족을 모색하는 학술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시** | 2017. 1. 27 ~ 28  
**주제** | 뇌, 지구시민, 그리고 우리의 글로벌 미래  
 Brain, Earth Citizen, and Our Global Future  
**장소** | 뉴질랜드 케리케리 시 터너센터  
 Turner Centre, Kerikeri City, New Zealand  
**참가** | 10개국 국제뇌교육협회 협력 파트너 및  
 후원자 1000여 명



## 전야제

1월 27일 열린 전야제는 1부 하늘, 2부 땅, 3부 사람을 주제로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시민 문화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담은 뉴질랜드 전통 마오리족 공연과 태권도, 비보이 공연, 일본 전통 춤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인간 뇌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평화성을 회복했을 때 창조할 수 있는 지구 중심의 평화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개막제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마오리족의 전통 노래이며 이 행사의 주제곡인 ‘포 카레카레 아나’를 따라 부르며 지구의 평화와 모든 지구시민들과의 연대를 기원했습니다.

## 개막제

1월 28일 개막제에는 타냐 매키니스 노스랜드 부시장, 샬리 맥칼리 시의원, 폴 데이비스 뉴질랜드 북섬관광사업팀 이사과 케리케리 시 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지역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미국 메릴랜드 래리 호건 주지사를 비롯해 린다 로페즈 뉴멕시코 상원의원과 린다 투투힐로 하원의원, 산타페, 마와, 뉴저지 시의 시장, 캐나다의 캐서린 맥케나 환경기후변화 장관, 한국의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을 비롯해 72명의 의원과 12개 광역시·도지사 등 총 165명이 축전을 보내 지구시민평화페스티벌을 축하했습니다. 타냐 매키니스 부시장은 “평화로 가득했던 전야제를 비롯해 이 엄청난 국제 행사에 함께하게 돼 감사하고 기존의 삶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구가 견딜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지구의 번영, 인간과 지구 어머니의 지속가능한 건강과 행복이 뉴질랜드의 우선순위인 만큼 지구시민운동의 이념과 동일하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나?”라며 지구시민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 협회장은 “케리케리 시는 온몸으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며 “지구시민운동은 자신의 가치를 찾는 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매년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지만 세상은 평화로워지지 않는다”며 “자신의 뇌를 활용하는 뇌교육을 통해, 그리고 뇌와 연결된 배꼽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고 건강과 행복, 평화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페스티벌의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 심포지엄 : 뇌, 지구시민 그리고 우리의 글로벌 미래

### Symposium: The Brain, Earth Citizenship, and Our Global Future



제1회 지구시민 평화 페스티벌 둘째 날에는 의학과 교육학, 심리학, 공학 그리고 최근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이 함께한 가운데 뇌교육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인류 공동의 가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자들 간의 연대와 네트워크인 '지구경영학회'가 발족했습니다. 지구경영학회를 통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학술 교류, 뇌교육에 대한 연구와 국제 협력 프로젝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발표자	발표 주제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	뇌와 지구시민의 가치 - 나의 가치, 인류의 가치, 자연의 가치를 찾자 The brain and the value of the Earth Citizen - Finding my value, the value of humankind, and the value of nature
데이브 빌(Dave Beal) 미국 브레인파워웬니스 이사	미래 리더를 양성하는 뇌교육 Brain Power Classroom for empowering future leaders
김나옥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교장	벤자민인성영재학교의 성공 스토리 Success stories from the Benjamin School for Character Education
에머런 마이어(Emeran A. Mayer) UCLA 의대 오픈하이머 센터장	장-뇌 커넥션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 How the mind-gut connection impacts our choices
연주현 한국뇌과학연구원 부원장	황칠의 암 전이 예방 및 장 건강 효과 How natural compounds prevent cancer metastasis and improve our gut health
리드 턱슨(Reed Tuscon) 미국 보건 정책 전문가, 미국 대체의학 및 통합의학연구소 자문 위원	뇌교육을 통한 공중보건 증진 How Brain Education can improve public health
릴리 조지(Lily George) 뉴질랜드 메시 대학교 수석 연구원	뇌교육을 통해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트라우마 치유하기 Healing Intergenerational Trauma through Brain Education



## 지구시민 선언문

페스티벌 개막제에서는 공동 주최 기관인 지구시민연합에서 제안한 지구시민 선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뇌교육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찾고 건강과 행복, 평화의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지구시민운동의 정신을 담은 선언문으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벨기에, 폴란드에서 참가한 지구시민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나는 나의 가치를 찾고 인성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모든 인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지구시민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과 평화로운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지구시민입니다.

나는 국가와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지구촌을 위해 살아가는 지구시민입니다.

나는 지구가 본래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지구 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해 실천하는 지구시민입니다.

나는 인류 의식의 진화와 새로운 지구 문명 시대의 도래를 위해 1억 명의 지구시민을 양성하는 일에 동참하는 지구시민입니다.



뇌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 뇌교육 두뇌올림피아드 IHSP



IHSP(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 International Brain HSP Olympiad)는 2005년 4월, 인간 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자 국제 뇌교육협회 과학 기술 분야 자문 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KIBS)에 의해 창설됐습니다. 유네스코(UNESCO)가 주최하는 수학, 물리, 생물, 화학, 정보, 천문 등 한 분야의 지식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국제올림피아드와 달리, IHSP는 인간의 두뇌 활용과 계발에 중점을 둔 두뇌올림피아드로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3개국 3만5000명이 참가한 1회 대회를 거쳐, 2회에는 오스카 아리아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공동 대회장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2008년부터 국제뇌교육협회는 창설 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과 함께 IHSP 국제 대회를 공동 주최해오고 있으며, IHSP 국가별 지역 및 본선 대회 기간 동안 뇌교육 세미나 및 전문가 심포지엄, 청소년 체험 캠프 등 뇌교육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뇌 활용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부대 행사를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 IHSP0 슬로건



## IHSP0 엠블럼



## IHSP0 취지문

인류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자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바로 ‘뇌’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명을 만든 것이 뇌의 무한한 창조성이듯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도 바로 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뇌의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면, 인류의 미래 역시 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시켜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의식이 한창 성장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뇌’는 더욱 중요합니다. 뇌를 더이상 어렵거나 다가갈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친근하면서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의 뇌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할 때 아이들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브레인 HSP올림피아드’를 개최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느 한 분야의 지식을 평가하는 국제올림피아드가 아닌 통합적인 뇌 활용과 두뇌개발에 초점을 맞춘 올림피아드를 통해 뇌 개발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제브레인 HSP올림피아드가 오늘날 인류 문명을 창조한 뇌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인류 모두가 원하는 건강, 행복, 평화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바로 우리의 뇌 속에 있음을 깨닫는 무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출처=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 홈페이지 [www.ihspo.org](http://www.ihspo.org))

## 평가 종목



브레인 윈도우 Brain Window

뇌 기능을 고도로 집중해 발휘할 때 나타나는 HSP (Heightened Sensory Perception: 고등감각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종목으로, 가장 의존적인 시 감각을 차단한 상태에서 그 이상의 감각으로 대상 정보를 인지하는 능력이다.

**평가 능력:** 고등감각 인지 능력, 메타인지



스피드 브레인 Speed Brain

각기 다른 색상을 가진 9~16개의 모양을 4초간 인식한 후, 그 결과를 재생함으로써 단기 기억 및 작업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종목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뇌는 시각으로 받아들인 정보의 일부분만 기억해낼 수 있다. 그러나 '스피드 브레인'은 사진을 찍듯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간 두뇌의 능력을 바탕으로, 단기 기억 및 작업 기억 그리고 순간 인지능력을 키울 수 있다.

**평가 능력:** 단기 기억, 작업 기억, 순간 인지능력



HSP Gym

HSP Gym은 호흡, 자세, 의식의 3가지를 의지대로 조절하는 과정이다. 체력은 물론 평형감각, 집중력, 지구력을 증진시키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몸의 모든 부위는 뇌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몸을 단련함으로써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커다란 자신감을 갖게 된다.

**평가 능력:** 평형감각, 좌·우뇌 밸런싱, 감정 조절력



HSP 12단

인간 뇌의 가장 근본적인 중추 기능인 '움직임(motion)'에 기반한 신체 조절 능력을 평가하는 종목으로, 근지구력, 균형 감각, 좌·우뇌 밸런싱 등을 체크한다. HSP12단은 1단부터 12단까지 단계별로 구성돼 있으며, 본 종목 출전 자격은 12단이 가능한 자로 한정한다.

**평가 능력:** 신체 조절 능력 (근지구력, 균형 감각, 좌·우뇌 밸런싱 등)

대회 참가 훈련 후기

“저는 원래 엄청 소심하고 나서지 않는 아이였는데 HSP 12단 훈련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훈련을 하다 보니 점점 활기차고 소통하는 제가 됐습니다. 저는 올림피아드에 총 2번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거꾸로 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몇 걸음 걷다 실패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넘어내어 현재 150걸음을 넘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체력과 자신감이 향상되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게 됐습니다.”

김O연, 벤자민 3기, HSP 12단 출전

“HSP 12단 훈련을 하면서 무엇보다 ‘선택하면 이뤄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을 해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망설이지 않고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자신을 믿게 돼 언제든 저가 선택하면 이뤄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자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윤혜O, 초 5, HSP 12단 출전

“오늘의 카드 보기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처럼 간절하게 카드를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카드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통과하고 있는데 왜 나만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너무 많은 피해의식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다면 생각을 버려, 이제 모든 생각들을 버리는 거야’ 하고 봤더니 그제야 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카드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카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처럼 저의 뇌를 진실되게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카드 보기는 집중력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카드 보기로 집중력을 많이 키운 것 같습니다.”

김O은, 초 6, 브레인 윈도우 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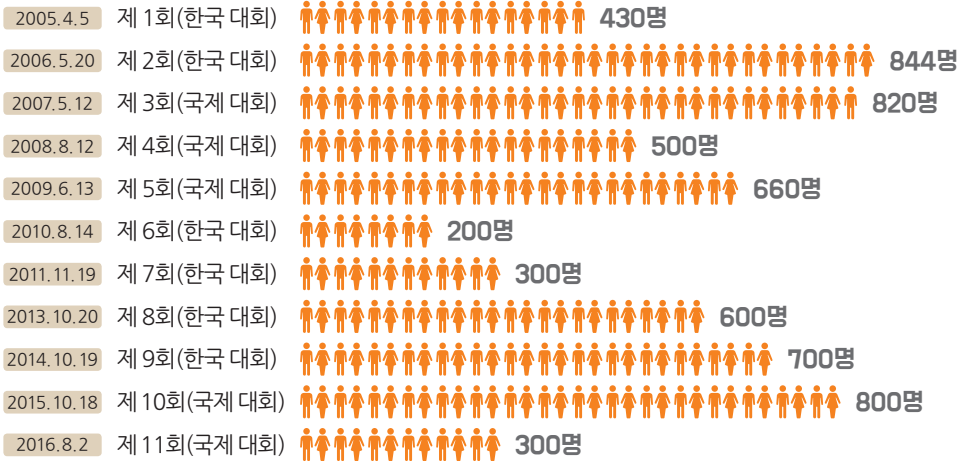
“오늘은 스크린이 정말 잘 보여서 놀랐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보여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카드 보기를 하면 할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길러져서 화가 올라올 때 왜 화가 났는지 한번 더 생각하게 돼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길러져서 내 몸에 어디가 이상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최형고O, 고 1, 브레인 윈도우 출전

“12단을 처음에 통과했을 때 너무 신나기도 했고 그동안 수없이 넘어졌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내 한계를 넘고 더욱 더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깨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자 했고 저에게 스스로 감동도 많이 받았고 다른 사람들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됐으며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박O희, 중 3, HSP 12단 출전

“브레인 윈도우 훈련 시 카드를 볼 때 점점 통과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소감을 발표하는 소리에 정신을 팔게 되고 저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긴장이 되고 잡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호흡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HSP 4단과 12단을 하면서 호흡을 크게 내신 후 바로 카드를 봤는데 정말 아무런 생각도 안 들어왔고 호흡만 하면서 저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스크린도 안정되게 잘 보였습니다. 브레인 윈도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잡생각들과 근심을 한번에 날려주고 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체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박주O, 고 1, 브레인 윈도우 출전

## 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 본선 참가 규모



## 역대 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 국제 대회

### IHSPO 2008

#### 제4회 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뉴욕, UN 본부)

- 10개국 500여 명 참가, 뇌교육의 세계화 이정표 제시
- ‘유엔 국제청소년의 날’ 기념
- UN경제사회국 NGO 섹션과 유엔NGO협의체 교육위원회 후원
- KIST 신경과학센터장 신희섭 박사 특별 강연

### IHSPO 2009

#### 제5회 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뉴욕, UN 본부)

- 10개국 200여 명 참가, 뉴욕 UN본부에서 개최
- 신경과학자, 교육자들이 함께하는 국제 세미나 동시 개최
  - \_ 다이엔 유엔NGO협의체 교육위원회 공동 의장 “인권에 대한 이해”
  - \_ 무랄리 듀크 의과대학 교수 “디지털 뇌: 뇌는 어떻게 잘 작동하는가”
  - \_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 회장 “뇌와 지구시민 정신”





# IHSP0 2015

## 제10회 국제브레인HSP 올림피아드

<제10회 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는 같은 해 6월부터 전국 15개 도시와 일본에서 열린 지역 대회 수상자들로 4개 부문에 걸쳐 약 800명이 출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HSP12단이 시범 종목으로 시행됐는데, 신체 조절력과 균형 감각을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뇌와 몸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도입했습니다.

대상은 브레인 윈도우 부문의 김노훈(벤자민인성영재학교), 금상은 브레인 윈도우의 배형준(벤자민인성영재학교), 응용 부문은 HSP Gym의 이채민(영천 성남여중), 스피드 브레인의 지창민(벤자민인성영재학교), 시범 부문 HSP12단의 박형국(벤자민인성영재학교)이 수상했습니다. 특별 단체상으로는 일본 참가자 고바 다이세이 외 3명이 수상했습니다.

**일시** | 2015. 10. 18

**장소**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한국, 천안)

**본선** | 한국, 일본 800여 명

부대 행사로는 뇌교육에 기반한 미래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는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일본 개교를 앞두고 벤자민인성영재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자기 계발과 예술 활동을 선보인 ‘브레인 콘서트’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콘서트에서 자신의 뇌가 가진 가능성을 체험하고 자신감과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의 성장 스토리를 공연으로 표현했습니다.



## IHSPPO 2016

### 제11회 국제브레인HSP 올림피아드



<제11회 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는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에서 3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뉴욕 아너스헤이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 대상은 이상민(김해 울하고), 금상은 브레인 윈도우 부문의 박상현(충남 가온중), HSP Gym의 이지원(부산 이사벨중), HSP 12단의 박형국(벤자민인성영재학교)이 수상했습니다.

**일시** | 2016. 8. 2

**장소** | 미국 뉴욕 아너스헤이븐

**본선** | 한미중일 4개국 300여 명

이번 대회에는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원년을 맞아 부대 행사로 미국 ECO(Earth Citizens Organization, 지구시민연합) 공동 주최로 ‘지구시민 청소년 리더십캠프’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또한 UN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지위의 미국 뇌교육 비영리 단체인 아이브레아파운데이션(IBREA Foundation)이 뉴욕 UN본부에서 주최한 ‘청년 멘탈 웰빙 콘퍼런스(Youth Mental Wellbeing Conference)’에 참가해 제10회 IHSPPO 대상 수상자인 김노훈 군이 한국 청소년 대표로 발표했습니다.



## 지구시민 청소년 리더십 캠프

제11회 IHSP0 뉴욕 국제 대회 부대 행사로 지구시민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열었습니다. 올림피아드를 통해 자신의 뇌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펼친 청소년들이 '지구'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지구



시민으로서의 리더십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캠프는 뉴욕 시의 맨해튼 공립 학교(Lab School for Collaborative Studies)에서 뇌교육 기반 지구시민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마네 앤더시안(Mane Andreyan) 교사, 그리고 미국 공립학교에 뇌교육을 보급하고 있는 브레인 파워 웰니스(Brain Power Wellness) 강사들이 진행했습니다.

**일시** | 2016. 8. 4

**장소** | 미국 뉴욕 아너스 헤이븐(Honor's Haven)

**참가규모** | 제11회 국제뇌교육올림피아드 뉴욕 국제 대회 참가 청소년 200여 명

**진행** | 미국 지구시민연합(Earth Citizens Organizations, ECO) 및 브레인 파워 웰니스(Brain Power Wellness) 강사

### 프로그램

1부	<b>뇌가 가진 잠재력을 깨워라!</b> 즐거움 뇌체조와 놀이 체험
2부	<b>지구를 건강하게, 나는 지구시민!</b> 내 안에서 태양과 같은 조건 없는 사랑 발견하기 지구를 건강하게, 액션 플랜 짜기
3부	<b>지구시민 프로젝트 소개</b>



## 청년 멘탈 웰빙 컨퍼런스 참가

IHSPO 참가자들은 결선이 끝난 다음 날인 8월 3일에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청년 멘탈 웰빙 컨퍼런스(Youth Mental Wellbeing Conference)'에 참가했습니다. UN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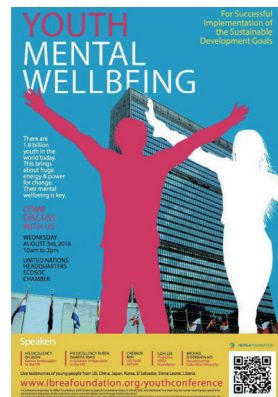


제사회이사회 협의의 지위의 미국 뇌교육 비영리 단체인 아이브레이파운데이션(BREA Foundation)이 주최한 이 콘퍼런스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청년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 콘퍼런스에 발표자로 초대된 제10회 국제뇌교육올림픽 대상 수상자 김노훈 군은 청소년 온라인 모임인 '청바지(청소년이 바꾸는 지구)'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김노훈 군은 "UN은 2030년을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신체적인 건강,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창조성을 꼽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구를 들어 올려 10미터를 걸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IHSPO의 공식 종목인 HSP 12단으로 콘퍼런스장을 걸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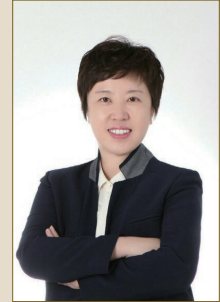
※ 청소년이 바꾸는 지구, 청바지: '청바지'는 지나친 경쟁만 조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청소년 스스로 바꾸자는 취지로 결성해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자유를 허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전국에서 150여 명이 함께 '청소년 자유 찾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 청소년이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청바지 [www.facebook.com/youthchangeE](http://www.facebook.com/youthchangeE))



## 국제브레인 HSP 올림피아드 참가 기관 대표 인터뷰

한국과 뉴욕 등지에서 열린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뇌교육이 미래 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글로벌 교육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지식을 겨루고 경쟁을 표방하는 기존 올림피아드 대회와는 달리,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뇌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대회 과정에 학부모들도 많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국제HSP올림피아드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두뇌 영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습니다.



### 이현정, 한국 비알뇌교육 운영 이사

좋은 인재의 척도가 '지식'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게다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젊은 인재들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졌습니다. 청소년들의 뇌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는 뇌교육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구시민으로서의 마인드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 국제 대회 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일본 대표들을 계속해서 선발해 참여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시나가와 레이코, 일본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교장

중국은 얼마전까지 시행된 1자녀 정책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향상으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두뇌 계발에 관한 관심이 큰 편이어서, 두뇌 올림피아드 IHSP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가해왔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가시화로 로봇 교육 열풍을 비롯해 중국 노동 인구의 40%를 3D 프린팅,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 인재로 키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주어진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아닌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창의력에서 나올 것입니다. HSP트레이닝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뇌가 가진 잠재성과 두뇌 계발의 중요성을 알도록 본 대회와 함께할 계획입니다. **줄리 묘, U-DAP Solution CEO**

뇌교육 융합 컨설팅

## 뇌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연계 연구 협력



2015년 5월, 유네스코가 주최한 세계교육포럼의 핵심 의제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었고, 2016년 아시아 최초로 한국 경주에서 개최된 세계 최고 권위의 시민사회 콘퍼런스 '유엔NGO콘퍼런스' 제66차 회의의 핵심 주제 역시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SDGs)'였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교육을 통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지구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과 공동체적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뇌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5년 상반기 뇌교육 관련 학술 기관과 현장의 교·강사들이 참여한 '지구시민교육연구회'를 발족해 세계시민교육과 뇌교육의 시너지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용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교·강사 연수 및 청년 대상 교육 워크숍을 진행해 2016년 한 해 동안 342명의 강사를 배출하고 전국 62개 학교에서 6500여 명의 학생이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받았습니다.

뇌교육 정신을 집약한 '뇌 선언문'은 인간의 뇌가 본질적으로 인간과 지구를 사랑하며, 평화를 추구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뇌교육은 이러한 인간 뇌의 본질적 지향성을 '지구시민정신'으로 제시하고 지구시민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체험적 교육 방법론을 실천해감으로써 세계시민교육과의 시너지를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과



2015.3.19

**뇌교육 전문가 포럼**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뇌교육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뇌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연계의 필요성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

2015.7.11

지구시민교육연구회 발족



2016.1.5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중학교 자유학기제용 프로그램

'소중한 지구, 우리는 세계시민'  
교안 제작 완료

2015.9~12

현장 시범 수업 실시 및 프로그램 수정

2015.7~9

중학교 자유학기제용 8회기(총 16시간) 프로그램 개발

## 지구시민교육연구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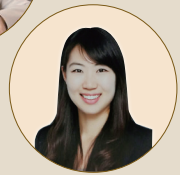
### 자문 위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신재한 교수**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김나옥 교장**  
한국뇌교육원 **김다인 수석팀장**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부 **장래혁 교수**



### 전문 연구 위원

경기 호곡중 **박경하 교사**, 충북 형석중 **이윤성 교사**  
경기뇌교육협회 **정옥량 부협회장**  
경기 뇌교육 교과연구회 **강명옥 회장**  
손지아 **브레인트레이너**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중학교 자유학기제용 1학기 프로그램 예시

#### ‘소중한 지구, 우리는 세계시민’

- (1) 뇌의 무한한 가능성, 특히 창조성과 평화성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뇌교육과 범세계적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써의 세계시민교육 접목.
- (2)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자아 정체성 교육’
- (3) 명상, 성찰적 글쓰기, 발표 등 반성적 성찰 활동을 강화해 점진적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가 내면화되도록 함.
- (4) 다양한 신체 활동을 적용해 긍정적 정서 상태에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함.

구분	회기	주제	주요 활동
나, 지구시민!	1	지구시민의 인사 (평화의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의 다양한 인사말과 인사법</li> <li>• 문화를 초월한 언어, 지구시민톡</li> <li>• 지구시민 인사 만들기</li> </ul>
	2	지구시민으로서의 나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낱말 잇기 게임</li> <li>• 햄버거 커넥션으로 본 세계화</li> <li>• 우리의 실천이 창조하는 긍정적 변화와 결과의 수레바퀴</li> </ul>
	3	내가 느끼는 평화 (평화의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를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의 차이</li> <li>• 러브 핸드, 평화를 소통하는 방법</li> <li>• 내 주변에서 평화 창조하기</li> </ul>
	4	모두를 위한 행복 (지속가능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에 대한 친구 고민 해결사</li> <li>• 나의 가치관 이해하기</li> <li>• 지구 연단으로 중심 가치 발견하기</li> </ul>
실천하는 지구시민	5	생존의 법칙 바꾸기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자 뺏기 놀이</li> <li>• 경쟁에서 다 같이 살아남는 방법, 신문지 놀이</li> <li>• 의자 뺏기 놀이와 난민 문제의 닮은 점은?</li> </ul>
	6	다양성은 힘이다 (문화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방계 · 남방계 얼굴 찾기</li> <li>• 다양성의 의미와 가치</li> <li>•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나의 편견 성찰하기</li> </ul>
	7	함께 나눠 쓰는 지구 공동체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 제대로 버리기 게임</li> <li>• 해양 쓰레기로 인한 동물의 고통</li> <li>• 함께 쓰는 지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li> </ul>
	8	나는 지구경영자 (지속가능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 지구경영 회의</li> </ul>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습

“모두 행복한 게 진짜 행복이죠!” 충청북도 형석중학교 2학년 2반 (담임 교사 이윤성)



### #1

지구시민 인사로 시작하는 아이들.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형석중학교 2학년 2반의 지구인 인사법, “장베르도스쿠테도~.” 표현법이 기발하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 또한 기특하다.

### #2

게임을 통해 난민 문제 다가서기. 아이들이 의자 뺏기 놀이에 한창이다. 아이들은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하지만 마지막 한 아이가 살아남았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 #3

신문지 접기 놀이. 점점 작아지는 신문지 위에 모두 올라서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아이들. 함께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즐거워한다. 이 게임을 통해 안전하게 살 곳이 없어 표류하는 난민들에게 살 곳을 나누는 기쁨을 간접 체험했다.

### #4

의자 뺏기 놀이와 신문지 접기 놀이를 한 뒤 명상을 통해 이 놀이의 의미를 되새기며 체험을 정리하는 아이들. 체험을 통해 난민 문제는 물론 이와 연결된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인 상황을 경험했다.



### #5

지구 고민 상자. 다양한 활동 뒤 아이들은 모둠별로 둘러앉아 자유롭게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모은 의견들을 ‘지구 고민 상자’에 담았다.

[출처=〈브레인〉]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심화 워크숍

국제뇌교육협회는 한국뇌교육원, 지구시민운동연합 공동 주최로, 2016년 상반기 교사와 강사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심화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세계화, 인권, 환경, 평화, 지속가능발전 주제 관련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세계시민교육적 관점을 이해하고 학습자 주도의 협력적 수업 운영 방법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습자 주도의 협력적 수업 운영 방식을 실습해보면서, 세계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에서 '배움'과 '성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로서의 역할 변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뇌교육을 가르쳐온 참가자들은 신체 활동과 자기 성찰 활동 등을 통해 자신감 향상과 의식 확장을 촉진하는 뇌교육이 글로벌 이슈들과 접목되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워크숍 참가 규모

총 4회   342명(교사 70명, 강사 272명)	2016. 1. 8	116명
	2016. 3. 20	46명
	2016. 3. 26	31명
	2016. 6. 6	149명

4  342 





### 참가자 소감

“지구시민으로서의 막연한 느낌이 아닌, 현실의 지구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인간이라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성했고 나와 연관성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김정미 강사

“지구를 주제로 교육적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모두 공감되는 부분이라 인상 깊었고 기존 교육과도 차별화를 느꼈습니다. 총 8회기 체험을 통해서 몸소 느끼고 마무리 명상으로 뇌 속에 실천 의지를 각인하는 과정이 특히 더 좋았습니다.” 이숙희 교사

“지구를 중심에 두고, 지구를 살리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글로벌 시대를 강조하는 지식적 전달이 아니라, 지구의 경영자로

서 책임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강미숙 교사

“평소 교사로서 필요성을 느끼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정되고 철학 없는 산발적 자료 형태로 떠돌아다니고 체계가 없는 교육이었는데 오늘 교육을 받으니 제대로 된 철학과 일관성 있고 지금 꼭 필요한 교육이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신혜숙 교사

“뇌교육이 지구경영 뇌교육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30여년간 해온 활동을 융합해 더 크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지구의 전반적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내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좋았습니다.” 정옥량 강사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포럼

2016년 1월 처음으로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중학교 자유학기제용 커리큘럼을 소개한 국제뇌교육협회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뤄진 청소년 교육과 교사 교육의 사례를 통해 뇌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접목이 가져온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국제아동뇌교육연구소에서는 국내 유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청소년, 학부모가 함께 '세계시민'의 의미를 풀어보는 <지구시민 토크(Talk)>가 이어졌습니다.

**일시** | 2016. 6. 12

**장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회의실

**참가자** | 교사, 강사 등 40여 명

**주최** | 국제뇌교육협회, 한국뇌교육원

**주관** | 지구시민운동연합,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 프로그램

순서	세부 내용
경과 보고	국제뇌교육협회 지구시민교육연구회
Keynote Speech	김나옥 국제뇌교육협회 부회장
Opening Speech	<b>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b> - 김지인 국제뇌교육협회 국제협력팀장
세션 I (청소년)	<b>중학교 세계시민교육 실천 사례 및 자유학기제 적용 방안</b> - 이윤성 세계시민교육 선도 교사
세션 II (교사)	<b>지구를 품은 교사가 미래 리더를 기른다</b> - 원수라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 교사
세션 III (유아)	<b>지구야, 사랑해!</b> - 안소영 국제아동뇌교육연구소 연구원
지구시민 토크 콘서트	<b>지구를 품은 아시아청년네트워크</b> -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클럽 <b>지구시민 토크(Talk)</b> - 청소년, 학부모



## 2016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결산 및 라운드테이블

2016년 1년간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보급을 위해 협력해온 5개 기관 공동 주최로 <2016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결산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교사와 강사, NGO 활동가, 청년 활동가들이 2016년 한 해 동안 교과 내 수업,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2017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시** | 2016. 12. 4

**참가자** | 교사, 강사, 청년 활동가 등 총 34명

**함께한 기관** | 지구시민운동연합, 한국뇌교육원,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벤자민인성영재학교

### 프로그램

발표자	발표 내용
충북사범대부설중학교 원수라 교사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
벤자민갭이어 김상미-미경은	중학교 '세계시민지구리더' 자율 동아리
지구시민운동연합 인천지부 정영 사무국장	중학교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은평뇌교육협회 박수인 협회장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부산 장산초등학교 정인지 교사	'지구시민특공대' 동아리 활동
대전 스텔공감연구회 강현숙 교사	초·중·고 연계 학생 실천 중심 창의·인성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연구

### 2017년 과제 도출

- 뇌교육적 요소 강화 : 변화와 성장의 내재적 동기부여
- 지역 연계 체험 활동 강화 : 생활 속 실천 동기부여
- 변화와 창조의 동력인 청년 세대 사회 공헌 활동 무대 제공





### 사례 발표자 후기

**“삶의 변화는 의식의 성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원수라 교사,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 교사**

어떻게 하면 세계시민교육이 세계화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지식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와 동료 세계시민교육 선도 교사들의 고민이었다. 그가 세계시민교육에 뇌교육을 결합한 수업을 하게 된 이유이다.

“뇌교육의 원리는 몸이 깨어나면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놀이나 신체 활동, 호흡 명상 등과 같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활동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는 세계시민교육은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특히 성찰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고 한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용기를 낼 때”**  
**박수인 뇌교육 강사, 은평뇌교육협회 협회장**

“처음에는 애들이 너무 무기력해서 수업이 잘 안 됐어요. 휴대폰만 보고 있고. 한 3회기 정도는 참고 애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며 ‘작업’을 곁어요. 저는 홀랜드 검사, 체력 테스트, 다중지능 검사처럼 아이들이 자신을 탐색해보는 활동을 소통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너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 이야기이니까 집중해서 듣고 마음을 열거든요.”

2016년 1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수업을 했는데, 다른 수업에 비해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이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용기를 낼 때이고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됐기 때문이다.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2016년 성과 및 주요 사례

### 1학기 커리큘럼 운영 (6차시 이상)

---

28개 학교 | 1157명



### 특강 제공 (2~3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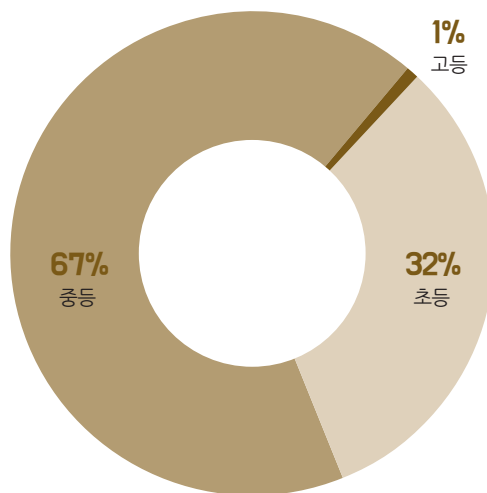
---

34개 학교 | 5324명



### 학급별 분포

---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성

뇌교육 원리와 방법을 적용한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이 일반적인 세계시민의식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교육 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로 세계시민의식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교육 이수자 236명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의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p < .01$ ).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5점 만점에서 사전 검사는 3.63점인 반면, 사후 검사는 3.92점으로 향상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 하위 요소의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간의 보편 가치( $p < .01$ ),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p < .05$ ),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p < .05$ ),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 의식( $p < .05$ ), 세계 지향적인 태도( $p < .05$ ) 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 $p < .05$ , \*\* $p < .01$

측정 요소		답변자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세계시민의식 (전체)	교육 전	236	3.63	.48	2.517**
	교육 후	236	3.92	.56	
인간의 보편 가치	교육 전	236	3.60	.61	2.883**
	교육 후	236	4.03	.70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교육 전	236	3.32	.46	2.335*
	교육 후	236	3.51	.54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교육 전	236	3.39	.50	2.194*
	교육 후	236	3.49	.56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 의식	교육 전	236	3.77	.67	2.236*
	교육 후	236	3.90	.72	
세계 지향적인 태도	교육 전	236	3.64	.57	2.278*
	교육 후	236	3.79	.64	

※ 세계시민의식 평가 도구: 국제뇌교육협회는 관련 문헌 조사를 토대로 장주혜가 <초등학생의 세계시민의식에 관한 연구>(2008, 석사 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설문지는 <국제 이해 교육의 실태와 국제 비교 연구>(1995, 김신일 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국제 문제 및 외국에 대한 태도 조사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사례1

학교 |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부설중학교

참가 학생 | 1학년 30명

담당 교사 | 원수라 교사

교육 기간 | 8.22 ~ 12.3

교육 시간/운영 주기 | 3시간/주 1회



### 수업 운영 중점 포인트

#### 1. '세계시민' 덕목에 대한 월드 카페 형식의 토론



세계시민이라는 말이 학생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월드 카페 형식으로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시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함. 수평적 대화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배려, 극복, 어울림, 도움, 존중, 이해, 관심 등을 세계시민의 덕목으로 정리했고 이런 덕목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됨.

#### 2. 신체 활동과 성찰 중심의 수업



몸이 깨어나면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뇌교육의 원리를 적용해 놀이나 신체 활동, 호흡 명상 등과 같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학생들 스스로 내면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명상뿐만 아니라 또래 간의 대화, 발표, 글쓰기 등 성찰의 기회를 많이 제공함.

#### 3. 삶에 다가가기



자기 삶과의 연관성을 스스로 찾고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체험 활동의 기회 제공. 콩고기 요리 실습, 지역 하천 살리기 캠페인, 천연 비누 만들기 등의 활동을 시행함.

## 중학교 자유학기제 사례2

**학교** | 경기도 고양시 호곡중학교

**참가 학생** | 1학년 52명

**담당 교사** | 박경하 교사

**교육 기간** | 8.22 ~ 12.5

**교육 기관** |

지구시민운동연합 경기북부지부

**교육 시간/운영 주기** | 2시간/주1회



### 회기별 학생 소감

#### 1회기 나는야 지구시민

-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인사법과 그에 담긴 뜻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나만의 지구시민 인사법을 만들면서 언어의 틀을 깨는 경험을 직접 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 2회기 지구시민의 선택

- 앞으로는 지구를 위해 지구를 해치지 않고 음식도 먹을 만큼만 먹고 안 남기고,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하고, 사소한 일에도 낭비하지 않도록 실천하고 노력해야겠다.
- 지구가 멸망한다는 절망보다는 나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 지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3회기 지구의 평화는 나로부터

- 평화는 마음만 먹으면 느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우리들이 느낀 평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러브 핸드를 통해서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활동이다.

##### 빈 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 )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연구하고 이해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평화를 ( )할 때만이

• 지구가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 같은 고민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만 31일정도 된다는 것만 알게 되

#### 4회기 세계 난민, 우리 다 함께 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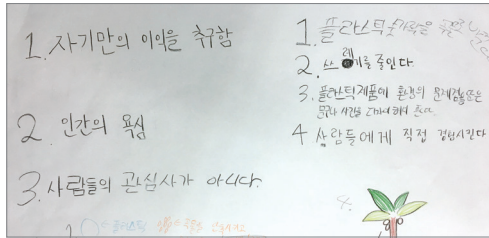
- 의자 뺏기 놀이에서는 이겨서 상품을 받고 신문지 놀이에서는 이기지도, 상품을 받지도 않았지만 신문지 놀이를 통한 기쁨이 더 컸다.
- 나만을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남과 협력하는 것이 더 이롭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난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 5회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힘이다

- 친구들과 나의 걸모습 차이, 생각의 차이 등을 발견하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를 알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좋았다.
- 나는 선진국이나 강대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우월하고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뒤쳐진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선입견을 깰 수 있었다.

**6회기 지구는 모두의 것이예요**

-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고 일을 시켜서 돈을 버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나는 동물을 학대하지 않겠다.
- 평소에 내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지구의 수많은 동물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이 놀랐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는 더 편해지자는 욕심도 버리고 귀찮다는 마음도 버려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해서 동물을 보호하고 함께 사는 지구를 만드는 지구시민이 되어야겠다.



**7회기 우리가 지구경영자**

- 지구시민이 뭔지를,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공부하며 지구시민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내가 고쳐야 할 점이나 배려하고 생각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서 머릿속이 좀 더 꽉 찬 느낌이 들었다.



## 뇌교육 컨설팅 지구시민교육 세미나



<제66차 유엔NGO컨퍼런스 : 세계시민교육> 한국 개최 기념



유엔공보국(UN-DPI) 가입 비영리 국제단체로서 5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제66차 유엔 NGO컨퍼런스: 세계시민교육> 개최를 기념해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지구시민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뇌교육 올림피아드 한국대회와 함께 열려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21세기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녀들에게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교육'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취지와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전 세계적 변화를 앞두고 이제는 자녀들이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지구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지구시민교육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구시민으로서 행동하고 교육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전국적으로 '지구시민 학부모연대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 전국 14곳에서 열려, 세계시민교육을 한국 사회에 대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4개 도시 | 1000여 명 참석

14  1,000 



**'지구시민 학부모연대 발대식'에 참여한 학부모 나눔**

“지구촌 문제가 심각하게 와 닿았다. 아이도, 부모도 모두가 받아야 할 교육이다. 우리 아이가 나만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고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박영O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게 만들고 싶다. 쓰레기 분리수거, 종이컵 안 쓰기 등 사소한 것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내가 지구시민이구나’ 하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하O자

“지구라는 대상에 대해 평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낸 편이 아니었는데 ‘지구와 내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각박하고 메마른 교육 시스템 속에서 내 아이가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뇌교육을 통해 좀 더 큰 의식으로 나를 넘어 지구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 인재를 키울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보았다.” 이소O 학생 어머니

“원래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 미래에 대해 생각했지만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돼 다시 한 번 지구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지구시민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대화와 체험을 실천해야 함을 깨달았다. 내 아이가 나만이 아닌, 나와 인류와 지구를 위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나부터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김O준 학생 어머니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No Plan B’인 지구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엄혹한 현실을 알게 됐다. 현재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고, 적응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고, 소중한 지구와 세계 인류를 위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경영자로 키우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됐다.” 정흥O 학생 어머니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 모두, 우리가 지지른 일임을 알게 됐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황폐화된 지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좀 더 지구를 사랑하고 아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힘들어 하는 지구가 많이 아파 보여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부터라도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학O경 학생 어머니

## 제 66차 유엔 NGO 컨퍼런스 참가

‘세계시민교육: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gether)’이라는 주제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경주에서 유엔 NGO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열린 이 행사에 국제뇌교육협회는 유엔공보국(UN-DPI) 정식 NGO로서 세계시민교육 선도 교사들, 한국형 세계시민교육의 산실 벤자민인성영재학교 학생, 20대 청년 인생 학교 벤자민캠퍼어,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 클럽 멤버들과 함께 컨퍼런스에 참가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학습 공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융합 인재 교육(STEAM) 활용, 미래 세계시민으로서의 아동·청년, 지구 관리자로서의 세계시민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그리고 NGO 단체별로 44개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장 바깥에 마련된 공간에서 국제뇌교육협회는 함께 참석한 30여 명의 뇌교육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세계시민교육과 뇌교육의 연계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지역적·문화적 다양성을 접하면서 참석자들은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느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각 나라마다 경제적, 문화적 장애가 많다. 세계시민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권, 평화, 난민 문제 등 국제 문제에 대한 인지적 이해도 필요하지만 먼저 교사와 학생들이 스스로 평화를 체험하고 지구, 전 세계 인류와 하나로 연결돼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공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의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교원 연수를 진행하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가 한국에 뿌리내리기 위해 뇌교육과의 협력 시너지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실제적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 유엔 NGO 컨퍼런스 참관기



##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클럽 노지향

지난 2월 국제뇌교육협회 주최로 제주에서 열린 <한중일 지구경영 워크숍>에서 지구 환경, 평화, 청년과 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클럽’을 결성했다. 이 핵심 멤버들이 경주에서 유엔 NGO 콘퍼런스를 계기로 모였다.

첫날 개막 전 청년들을 위한 유스 코커스(Youth Caucus)에서 한비야 씨는 “지금 우리 시대는 지구촌(Global village)이 아니라 ‘글로벌 하우스(Global house)’의 개념으로 확장됐다”고 말했다. 지구 안에서 우리 인류는 이제 ‘하나의 큰 가족’이라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술 발달과 확산이 이뤄졌다. 하지만 얇은 유리벽 한 장으로 연결된 지구 안에서도 소통과 공감이 원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많은 세계인들이 옆방에 있는 가족의 고민과 문제를 나의 것으로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면 보다 화목하고 평화로운 지구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연설 대부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청년들의 에너지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반 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제는 청년들이 앞장서야 하는 세상이 왔고, 그래야만 깨어 있는 청년들이 그리는 희망적인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느꼈다.

그러면서 지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스스로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성찰 능력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특히 내가 어릴 때부터 받은 뇌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지구라는 큰 가치 속에서 나를 성찰하고 내면 본연의 가치를 찾는 능력을 길렀듯이 뇌교육과 같은 양질의 교육이 필요함을 느꼈다.

요즘 사회는 높은 실업률 속에 먹고살 생각밖에 할 수 없고 지구와 인간이 하나라는 생각까지 할 여유가 없게 돌아가는 사회가 됐다. 그래서 이번 UN 콘퍼런스의 주제인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주제가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 또한 세계인들이 명상을 하며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할 줄 앎으로써 자신을 생존이나 노동력과 같은 가치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뇌를 가질 수 있다면 ‘세계 평화’라는 의미에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콘퍼런스 전반에 걸쳐 지구와 세계 평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정적으로 토론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포용력과 관대함으로 지구상의 난제를 해결하자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의 모색과 구상에서는 미약함이 느껴졌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아 한계를 느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세상과 지구를 바꾸는 행동은 청년들의 몫이고 책임인 동시에 특권이라는 것을 배운 뜻 깊은 시간이었다.

## 뇌교육 융합 컨설팅

# 벤자민갭이어 세계시민 청년강사 워크숍



현직 교사-강사 대상의 심화 워크숍에 이어,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공동 주최로 벤자민갭이어 청년 대상 세계시민 청년강사 워크숍을 인천과 부산에서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교육 봉사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교육 과정으로, 전국에서 총 45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방향이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인터넷 검색과 지식 공유를 통한 수평적 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현직 교사와 함께 세계시민교육 주제별로 수업을 직접 계획해 모의 운영해봄으로써 이후 봉사 활동을 위한 자신감을 부여해주었습니다. 이어, 워크숍 참가자들의 요청으로 12월 27일 심화 워크숍을 열어 실제 활동상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워크숍 참가 규모

총 3회 | 참가자 52명



2016. 7. 10	18명
2016. 8. 27	46명
2016. 12. 27	7명

### 참가자 소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세계, 지구를 중심에 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굳건히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달리고자 하는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다른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부산 워크숍 참가자 이수빈

“지구의 문제가 막연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깝게 피부로 느껴지고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없는 담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지구적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체험을 통한 얹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산 워크숍 참가자 황성곤

“세계시민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데에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알려 세상을 살리는 주체가 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각을 느꼈다. 지구시민교육을 들음으로써 이 교육을 하게 되면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새로운 자각이 들었습니다. 가르치면서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정리할 수 있다는 강사님의 말씀이 와 닿아서 스스로도 강사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 워크숍 참가자 양경환

벤자민갭이어는 벤자민인성영재학교가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으로, 나와 세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운영해봄으로써 뇌운영시스템(Brain Operating System)을 체득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세계시민 청년 강사 활동성과

학생 수 643명 | 수업 시간 84시간

643 

84 

서울시 오금중학교	20명	18시간
경기도 호곡중학교	52명	36시간
인천시 선화여자중학교	16명	12시간
인천시 부광중학교	210명	2시간
인천시 만주여자중학교	20명	2시간
인천시 도화초등학교	260명	2시간
충청북도 형석중학교	35명	9시간
충청북도 충북대 사범대부설중학교	30명	3시간

강사 후기

이렇게 훌륭한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무척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매 회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나에 대해 새



롭게 알게 됐어요. 보통 버스를 타면 그냥 멍하니 있거나 친구랑 카톡하거나 그러는데 이제는 서 있으면서도 계속 다음 수업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인천 벤자민갭이어 이경은

저는 대학원에서 지구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명상이나 호흡과 같은 성찰하는 시간,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고 자신의 뇌를 느끼는 시간에 정말 많이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네가 이 지구를 살릴 리더야. 주인이야’ 이런 말이 가슴에 확 와 닿지 않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웠어

요. 앞으로는 학교 내에서의 수업이 학교 밖에서의 봉사 활동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자신이 선택한 활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경기 벤자민갭이어 김지은

학교 다닐 때 친구와의 관계보다 항상 공부, 경쟁, 대학이 중요하다고 배우며 컸는데 그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처럼 경쟁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메인 강사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저도 함께 생각하게 됐어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내가 맡은 조에서 ‘양치할 때 칫을 써서 물을 절약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모두가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어서 뿌듯했어요.

서울 벤자민갭이어 이유리



**[활동 사례] 충북대 사범대부설중학교**

국제뇌교육협회의 청년 대상 세계시민강사 워크숍을 이수한 벤자민갭이어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청년다운 신선한 발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어려운 주제들을 놀이로 쉽게 풀어놓아 참가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닌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아주 특별한 수업'이라고 참가 청년 강사들이 소개한 이 워크숍은 학생들이 환경, 인권, 평화, 세계화, 문화 다양성의 5개 조로 나눠 각각 퍼즐 맞추기, 의자 뺏기, 높은 가위바위보, 꼬인 손 풀기, 몸으로 말해요 등의 게임을 통해 주제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태** | 중학교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

**참가 학생** | 1학년 30명

**담당 교사** | 원수라 교사

**강사** | 벤자민갭이어 청년 강사 6명 (김지은, 노지향, 신호재, 박주선, 이동은, 홍정표)

**교육 일시** | 2016년 10월 8일 3시간

**교육 내용** | 환경, 인권, 평화, 세계화, 문화 다양성 등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를 놀이로 체험하기

뇌교육 정보 확산

## 세계뇌주간 기념 뇌교육 세미나



인간 뇌의 중요성과 가치 알리고자 전 세계 60여 개국 동참하는 글로벌 액션 주간



‘세계뇌주간(World Brain Awareness Week)’은 인간 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반인들에게 뇌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996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3월 셋째 주를 세계뇌주간으로 지정해 전 세계 60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설립 목적에 따른 뇌교육 가치 확산을 위해 매년 3월 세계뇌주간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뇌교육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 13곳, 2016년 17곳, 2017년 9곳

13 17 9

2015년 13곳, 2016년 17곳, 2017년 9곳 등 매년 평균 13곳에서 약 1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전국 뇌교육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협회 자문 기관 및 협력 파트너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전체 협의를 통해, 당해의 세계뇌주간 뇌교육 전국 세미나의 슬로건을 제정하고 전국 세미나 일정 및 강연 주제를 협의해 결정합니다. 슬로건은 2012년 '비폭력, 정서 그리고 명상', 2015년 '인성코칭', 2016년 '인간, 뇌 그리고 지구', 2017년 '자연지능, 감정, 인성영재' 등 점차 실용적 주제에서 공동의 가치를 반영한 콘셉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일반 시민 대상의 무료 대중 강좌로 진행되며, 참여 강사도 재능 기부로 참여합니다.

**세계뇌주간 기념 뇌교육 전국 세미나 (2015 ~ 2017)**

<p><b>2015</b></p>	<p><b>슬로건:</b> 인성코칭  <b>기간:</b> 2015년 3월 10일 ~ 4월 17일  <b>장소:</b> 13곳 (서울 2곳, 부천, 군포, 분당, 영천, 대구, 충북, 마산, 부산, 광주, 구미, 전북)  <b>공동 참여 기관:</b> 각 지역 뇌교육협회, 브레인트레이너협회, 브레인월드, 체인지TV, 비알뇌교육</p>
<p><b>2016</b></p>	<p><b>슬로건:</b> 인간, 뇌 그리고 지구  <b>강연 주제:</b> 10년 후, 아이의 미래를 바꿀 교육 트렌드 / 인성을 두드리면 왜 창의성이 열리는가  <b>기간:</b> 2016년 3월 16일 ~ 3월 25일  <b>장소:</b> 17곳 (서울 2곳, 경기 2곳, 인천, 충북, 충남, 광주, 순천, 대구, 포항, 구미, 창원, 원주, 대전, 전북, 부산)  <b>공동 참여 기관:</b> 국제뇌교육학회,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한국뇌과학연구원, 브레인트레이너협회, 각 지역 뇌교육협회, 비알뇌교육, 브레인월드</p>
<p><b>2017</b></p>	<p><b>슬로건:</b> 자연지능, 감정 그리고 인성영재  <b>강연 주제:</b> 인공지능 시대, 자연지능을 깨우다 / 뇌를 잘 아는 부모, 뇌를 잘 쓰는 아이 / 우리 아이 교육, 속도보다 방향이다  <b>기간:</b> 2017년 3월 14일 ~ 3월 24일  <b>장소:</b> 9곳 (서울 3곳, 부천, 청주, 아산, 창원, 원주, 부산)  <b>공동 참여 기관:</b> 국제뇌교육학회,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한국뇌과학연구원, 브레인트레이너협회, 각 지역 뇌교육협회, 비알뇌교육, 브레인월드</p>



## 뇌교육 정보 확산

#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



2006년 창간 격월지, 한국뇌과학연구원-국제뇌교육협회 공동 발행

국제뇌교육협회는 설립 목적에 따른 뇌교육 가치 확산을 위해 협회 과학 기술 부문 자문 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KIBS, Korea Institute of Brain Science)과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을 공동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한국뇌과학연구원은 2007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협의 지위 기관에 등록됐으며, 1990년 설립된 뇌 활용 분야 중점 연구 기관입니다.

《브레인》 매거진은 2006년 창간된 한국 내 유일의 뇌 전문 잡지입니다. 온라인 웹사이트 브레인미디어([www.brainmedia.co.kr](http://www.brainmedia.co.kr))를 통해 잡지 기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뇌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포털 뉴스인 네이버, 다음, 네이버, 구글과의 뉴스 검색 제휴를 통해 기사를 제공합니다. 한국 내 650개 공공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에 디지털 잡지 형태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형 서점 및 모바일과 eBook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국제뇌교육협회 자문 기관 및 협력 파트너, 후원 회원들에게 협회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뇌교육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뇌교육 콘텐츠 보급을 위해, 자문 기관 및 협력 파트너 협의를 통해 매년 초 3대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매호 발행 시 집중 리포트 주제를 선정해 심층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간 포털 뉴스 100만 건 기사 조회
- 한국 공공 대학 도서관 650여 곳 디지털 잡지 공급
- 전 세계 10개국 협력 파트너 기관 제공

650  100만 



《브레인》 매년 3대 키워드 (2015~2017)

2015년 3대 키워드: 자연치유, 인성, 인공지능

2016년 3대 키워드: 인공지능, 뇌파, 감정 관리

2017년 3대 키워드: 자연지능, 감정, 인성영재

《브레인》 집중 리포트 호별 주제 (2015~2016)

50호: 평화교육 뇌교육

51호: 번아웃시대 두뇌 관리법

52호: 감정 관리, 뇌 안에 답이 있다

53호: 이제는 자연치유력이다

54호: 두뇌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습니까?

55호: 창의적 미래 인재의 조건

56호: 2016 3대 키워드- 인공지능, 뇌파, 감정 관리

57호: 인공지능 시대와 교육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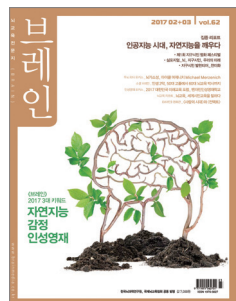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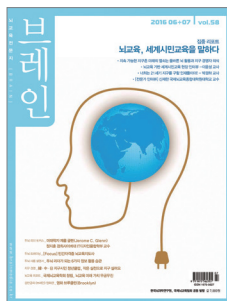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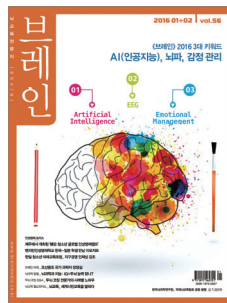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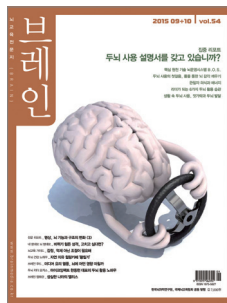
58호: 뇌교육, 세계시민교육을 말하다

59호: '제2의 뇌'를 깨워라

60호: 지금은 멘탈 케어 시대,  
감정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61호: 2017 3대 키워드- 자연지능, 감정, 인성영재

62호: 인공지능 시대, 자연지능을 깨우다







# V

## 운영의 지속가능성

96 회계 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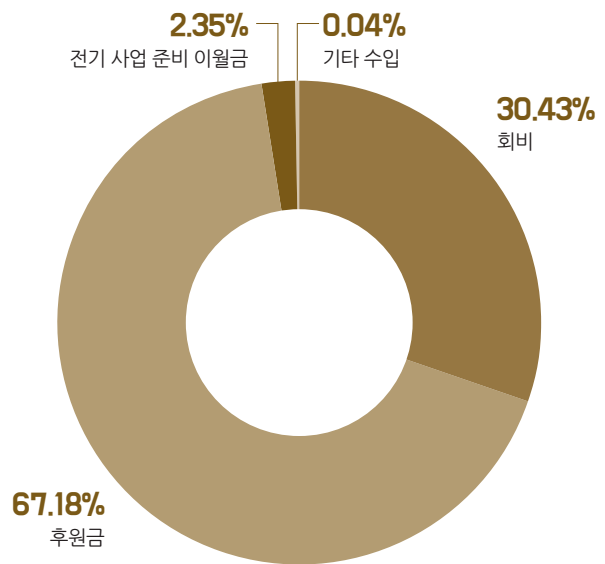
100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모금

101 후원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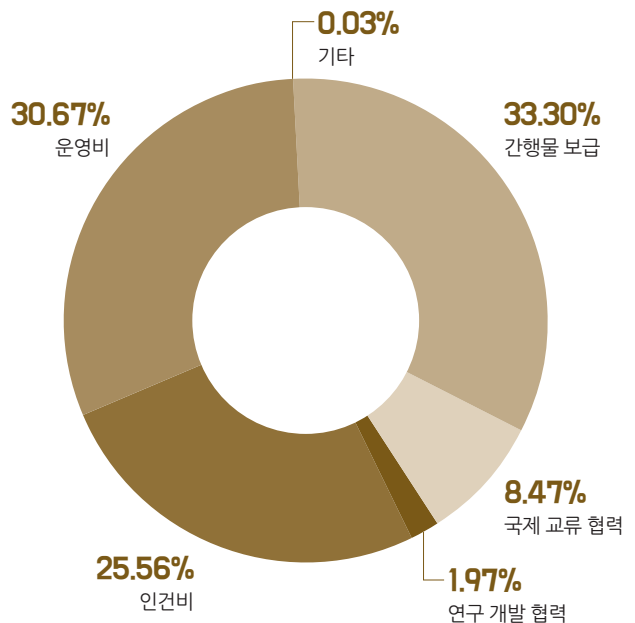
# 회계 투명성

## 2015년 결산

수입 내역	2015년 결산	비율(%)
회비	22,923,000	30.43
후원금	50,610,000	67.18
기타 수입	30,694	0.04
전기 사업 준비 이월금	1,771,232	2.35
합계	75,334,929	100



지출 내역		2015년 결산	비율(%)
목적 사업	간행물 보급	30,175,704	33.30
	국제 교류 협력	7,676,875	8.47
	연구 개발 협력	1,781,580	1.97
인건비		23,166,530	25.56
운영비		27,795,257	30.67
기타		28,451	0.03
합계		90,624,39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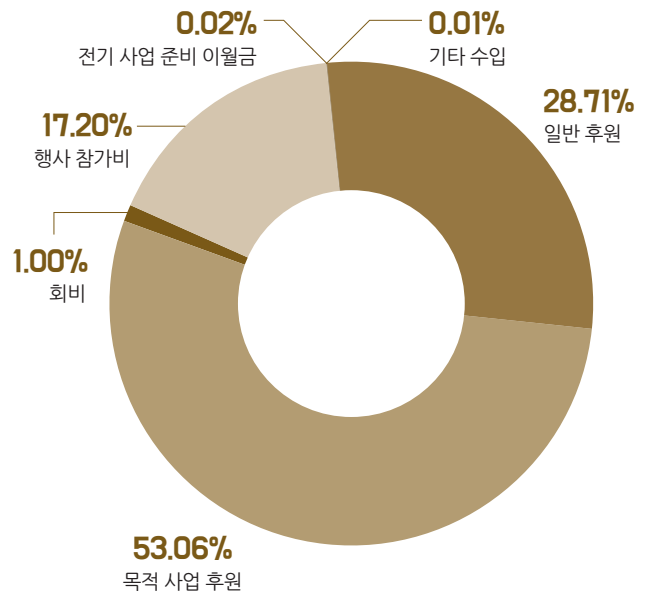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국제뇌교육협회는 뇌교육의 가치를 공감하고 확산을 위해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관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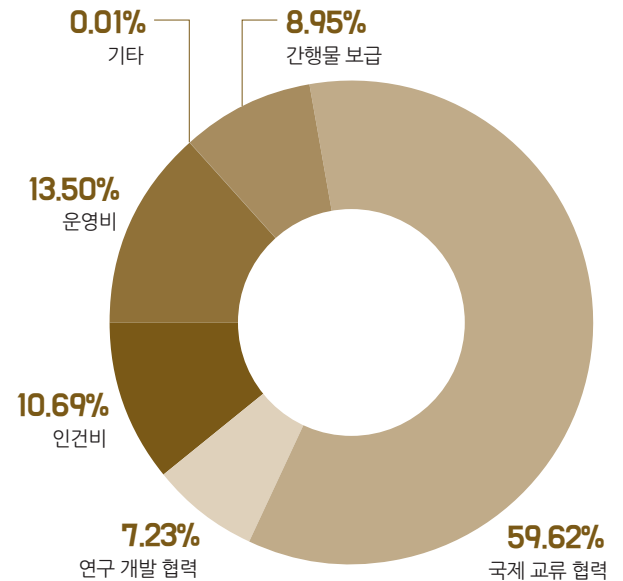
1. 예산은 해당 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자문 협력 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안건을 채택하고, 연초에 개최되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해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2. 연 1회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감사 및 정산 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기획재정부 지정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국제청 홈택스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결산**

수입 내역	2016년 결산	비율(%)
회비	2,115,000	1.00
일반 후원	60,710,000	28.71
목적 사업 후원	112,192,290	53.06
행사 참가비	36,356,000	17.20
기타 수입	27,280	0.01
전기 사업 준비 이월금	37,611	0.02
합계	211,438,181	100



지출 내역	2016년 결산	비율(%)
목적 사업	간행물 보급	20,119,915 / 8.95
	국제 교류 협력	134,089,455 / 59.62
	연구 개발 협력	16,253,940 / 7.23
인건비	24,042,107	10.69
운영비	30,369,588	13.50
기타	13,708	0.01
합계	224,888,713	100



## 내부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국제뇌교육협회 이사회 귀중

본 감사는 사단법인 국제뇌교육협회의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회계 감사는 법인에서 제시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일반적인 회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 처리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행정 감사는 법인이 제시한 관련 장부 및 행정 서류 등에 대한 검토 및 이사회 및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계 감사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감사시 발견된 회계적 오류 사항은 재무재표에 수정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추후 회계적 개선 사항은 별도로 회계 담당자 및 관리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 국제뇌교육협회의 재무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되었으며, 사업 활동 및 행정 처리 등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안정적으로 이뤄졌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12일

국제뇌교육협회 감사 유 병 일



국제뇌교육협회 감사 유 성 모



## 손익계산서

제 11(당)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10(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국제뇌교육협회

(단위 : 원)

과 목	제11(당)기		제10(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211,373,290		73,533,000
기부금수익	172,902,290		50,610,000	
협회비	2,115,000		22,923,000	
행사비수입	36,356,000		0	
II. 매출원가		0		0
III. 매출총이익		211,373,290		73,533,000
IV. 판매비와관리비		224,875,005		90,595,946
직원급여	21,240,000		19,740,000	
상여금	200,000		200,000	
복리후생비	815,440		551,270	
여비교통비	872,960		370,100	
통신비	820,735		778,442	
세금과공과금	939,030		853,660	
지급임차료	7,704,972		7,704,972	
보험료	731,080		482,560	
운반비	0		2,208,010	
도서인쇄비	82,500		10,800	
회의비	870,500		66,400	
소모품비	1,372,930		676,050	
지급수수료	13,262,101		11,200,750	
광고선전비	188,215		0	
건물관리비	2,620,365		2,690,013	
무형고정자산상각	904,200		753,500	
퇴직연금	1,786,667		2,675,260	
간행물발행보급	20,119,915		30,175,704	
국제교류협력	134,089,455		7,676,875	
연구개발협력	16,253,940		1,781,580	
V. 영업손실		13,501,715		17,062,946
VI. 영업외수익		64,891		1,801,926
이자수익	13,705		24,451	
고유목적준비금수입	37,611		1,771,232	
잡이익	13,575		6,243	
VII. 영업외비용		13,708		28,451
고유목적준비금전입	13,705		24,451	
잡손실	3		4,000	
VIII. 법인세차감전손실		13,450,532		15,289,471
IX. 법인세등		0		0
X. 당기순손실		13,450,532		15,289,471

##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모금

일반 후원과 회비에 의존하던 수입 구조에서 2016년에는 목적 사업 후원의 비율을 높여 새로운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뇌교육의 국제사회 확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재정적 지원과 사업 수행 전문성을 교환하는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이뤘습니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목적 사업 후원을 늘려나가는 한편, 성과 관리 및 결과 보고가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 [2016년 사례]

#### 1. 제주 한중일 지구경영 워크숍 ‘청년, 뇌, 그리고 지구’

 5,100,000 원

후원금 | 5,100,000원

목적 | 파리기후협약 발효를 앞두고 한중일 청년들이 함께 뇌교육을 통한 지구시민운동의 방향 모색

후원 기관 |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일본 지구시민학교

#### 2. 제11회 뇌교육 두뇌올림피아드 IHSP0 국제대회 개최

 102,875,290 원

후원금 | 102,875,290원

목적 | IHSP0를 통한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 및 지구시민정신 체험 기회 제공

후원 기관 | IHSP0 국제대회 참가자

#### 3. 장-뇌 커넥션 석학 에머런 마이어 박사 초청 세미나

 4,217,000 원

후원금 | 4,217,000원

목적 | 장-뇌 커넥션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소개 및 관계 기관 간 연구 협력 추진 기회 마련

후원 기관 | 일지인성문화재단

#### 4. [뇌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뉴질랜드 뇌교육 국제 심포지엄

 66,000,000 원

후원금 | 66,000,000원

목적 | 뇌 활용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과학, 교육학, 심리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 간 협력과 연대의 장 마련

후원 기관 | 일지인성문화재단

# 후원자 관리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이행

국제뇌교육협회는 2014년부터 기획재정부 지정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후원 회원 대상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전산 시스템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제출해 후원 회원의 연말 정산 편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후원자 정보 관리

1. 후원 회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투명한 후원금 납부 관리를 위해 아름다운재단, 그린피스, 유엔난민기구, 대법원 등 700여 개가 넘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후원, 회원 관리 전문 솔루션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홈페이지를 개편해 온라인으로 직접 회원 정보와 기부금 내역을 상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후원을 중단한 분들의 개인 정보는 5년 이내에 폐기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후원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처리해 보관합니다.

## 향후 계획

1. 그동안 회원 대상 뇌교육 관련 전문 정보 제공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던 IBREA Report의 발행 주기를 분기별로 늘리고 목적 사업 운영 현황을 IBREA Report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 회원님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2.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주소 변경으로 인해 국제뇌교육협회의 정보를 받지 못하고 계신 후원 회원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 정보 업데이트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 부록

- 104 국제뇌교육협회 후원 회원
- 107 제3자 검토 의견
- 109 지속가능성보고서 보고 지표

# 국제뇌교육협회 후원 회원

국내외 뇌교육을 대중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함께해오신 후원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후원 회원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뇌교육 관련 출판물 발행 및 보급, 뇌교육 관련 컨설팅, 해외 교육 원조, 뇌교육 콘퍼런스 개최, 프로그램 연구 개발, 사무국 운영 등에 지출됩니다.  
 월 5000원 이상 정기 후원 회원이 되시면, 격월간 뇌교육 매거진 《브레인》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뇌교육 정보를 뉴스레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후원 방법** \_ 국제뇌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배너 클릭 후 신청(국제뇌교육협회 [www.ibrea.org](http://www.ibrea.org))

## 국제뇌교육협회 후원 회원 명단 (2017. 3)

- |      |     |     |     |     |     |     |     |     |     |     |     |     |     |     |     |     |     |
|------|-----|-----|-----|-----|-----|-----|-----|-----|-----|-----|-----|-----|-----|-----|-----|-----|-----|
| 김호애  | 강동근 | 강미경 | 강미라 | 강미란 | 강상익 | 강성원 | 강수희 | 강숙양 | 강노을 | 강영숙 | 강윤정 | 강은주 | 강주영 | 강준희 | 강진덕 | 강훈자 | 강태성 |
| 강태희  | 강행원 | 강현숙 | 강홍련 | 경은숙 | 고경숙 | 고병진 | 고애란 | 고영석 | 고임선 | 고점숙 | 공남순 | 공선임 | 곽명자 | 곽선웅 | 곽영철 | 곽정옥 | 구옥순 |
| 구은경  | 구자근 | 구중호 | 권경희 | 권경희 | 권기선 | 권대원 | 권선기 | 권용태 | 권은미 | 권진미 | 권혜숙 | 기필수 | 김강록 | 김강민 | 김개령 | 김건용 | 김경미 |
| 김경숙  | 김경숙 | 김경희 | 김광린 | 김규자 | 김근희 | 김금자 | 김남희 | 김대성 | 김덕기 | 김량희 | 김라라 | 김명순 | 김명순 | 김명중 | 김미숙 | 김미순 | 김미순 |
| 김미정  | 김미정 | 김미정 | 김미혜 | 김미혜 | 김미희 | 김민서 | 김민숙 | 김민정 | 김병삼 | 김복란 | 김사원 | 김상철 | 김석준 | 김태령 | 김선미 | 김선화 | 김선희 |
| 김성미  | 김성미 | 김성희 | 김성희 | 김수진 | 김수홍 | 김순이 | 김순자 | 김순필 | 김승중 | 김사성 | 김신애 | 김심근 | 김언정 | 김연계 | 김영경 | 김영순 | 김영신 |
| 김영애  | 김영옥 | 김영희 | 김옥순 | 김완주 | 김용규 | 김유생 | 김유성 | 김유순 | 김윤정 | 김윤정 | 김윤주 | 김은녀 | 김은숙 | 김은영 | 김의량 | 김의식 | 김이자 |
| 김인숙  | 김인순 | 김인순 | 김인이 | 김장근 | 김재경 | 김재광 | 김재옥 | 김정란 | 김정순 | 김정옥 | 김정운 | 김정자 | 김정희 | 김제원 | 김종갑 | 김종덕 | 김주매 |
| 김주연  | 김주영 | 김단영 | 김종열 | 김지연 | 김지하 | 김진미 | 김진수 | 김진숙 | 김진용 | 김진환 | 김진희 | 김창환 | 김채숙 | 김태연 | 김하옥 | 김한진 | 김해섭 |
| 김향계  | 김현옥 | 김현우 | 김현화 | 김혜경 | 김혜균 | 김혜선 | 김혜영 | 김혜영 | 김혜진 | 김호석 | 김홍기 | 김효경 | 김효준 | 김홍걸 | 김희명 | 김희숙 | 김희준 |
| 나여진  | 남미자 | 남승목 | 남태무 | 노대현 | 노인옥 | 노재영 | 류동수 | 류재연 | 류지현 | 류희경 | 명광례 | 모종영 | 문성준 | 문순주 | 문은경 | 문지원 | 민병철 |
| 민슬기  | 민옥경 | 민정희 | 민홍우 | 박기란 | 박명희 | 박문희 | 박미영 | 박미영 | 박미진 | 박보라 | 박부열 | 박상진 | 박선규 | 박선에 | 박선정 | 박성현 | 박성현 |
| 박세현  | 박승영 | 박영희 | 박용규 | 박용일 | 박은경 | 박은미 | 박은영 | 박은주 | 박은희 | 박이분 | 박재숙 | 박재연 | 박정규 | 박경배 | 박정숙 | 박정옥 | 박정준 |
| 박종찬  | 박종현 | 박종호 | 박주언 | 박주혁 | 박주형 | 박중보 | 박지영 | 박지용 | 박진규 | 박진양 | 박창영 | 박창용 | 박철규 | 박현미 | 박현숙 | 박현정 | 박형운 |
| 박혜숙  | 박화곤 | 박화실 | 박효경 | 박희경 | 반종률 | 방은진 | 방서인 | 배병훈 | 배선옥 | 배송희 | 배수진 | 배수현 | 배순심 | 배은숙 | 배정운 | 배종식 | 배준한 |
| 백정훈  | 변근주 | 변복희 | 복경숙 | 봉신영 | 부유석 | 서경수 | 서경숙 | 서남미 | 서병각 | 서인영 | 서지영 | 석상순 | 선윤희 | 설성미 | 성계순 | 성보훈 | 성영희 |
| 소정아  | 소현정 | 손경미 | 손미화 | 손복미 | 손지아 | 손현영 | 송경남 | 송경식 | 송병서 | 송연희 | 송은경 | 송인경 | 송지나 | 신경대 | 신미옥 | 신마용 | 신상옥 |
| 신선미  | 신선영 | 신선희 | 신소영 | 신수영 | 신승국 | 신은숙 | 신은정 | 신은희 | 신재순 | 신정구 | 신준동 | 신현옥 | 신형민 | 심명희 | 심영혜 | 심인숙 | 인경원 |
| 안병관  | 안보영 | 안석중 | 안선영 | 안순례 | 안승찬 | 안영미 | 안용선 | 안용숙 | 안희희 | 안지영 | 안진경 | 양동운 | 양상훈 | 양서인 | 양원조 | 양정숙 | 엄덕현 |
| 엄윤섭  | 엄윤숙 | 여희숙 | 연소현 | 염현아 | 오영희 | 오임생 | 용미영 | 우교숙 | 우상호 | 우순실 | 우승명 | 원수라 | 유기정 | 유명하 | 유미현 | 유병국 | 유임현 |
| 유정희  | 유지숙 | 유현숙 | 유희근 | 윤두환 | 윤미영 | 윤미영 | 윤석완 | 윤선아 | 윤은경 | 윤은주 | 윤인수 | 윤정미 | 윤정인 | 윤정희 | 윤혜경 | 이강민 | 이건도 |
| 이경아  | 이경자 | 이경화 | 이기복 | 이남숙 | 이노경 | 이대열 | 이동심 | 이말경 | 이명규 | 이명숙 | 이명주 | 이문규 | 이미경 | 이미경 | 이미란 | 이미향 | 이민철 |
| 이백련  | 이병택 | 이상재 | 이선화 | 이선희 | 이성민 | 이소영 | 이소현 | 이수경 | 이수관 | 이수연 | 이수향 | 이순미 | 이승용 | 이승진 | 이승호 | 이시근 | 이영미 |
| 이에스더 | 이연경 | 이연주 | 이영민 | 이옥희 | 이용주 | 이유미 | 이윤광 | 이은미 | 이은영 | 이은주 | 이인영 | 이인우 | 이장희 | 이재정 | 이재철 | 이재훈 | 이재훈 |

이정림	이정미	이정미	이정숙	이정옥	이정옥	이종금	이종영	이준호	이지수	이지영	이지영	이지윤	이진선	이진수	이창진	이철규	이훈애
이치민	이해성	이현선	이현숙	이현아	이현정	이현주	이혜윤	이홍인	이화연	이화정	이효섭	임경순	임경희	임묘진	임병열	임영미	임윤희
임은희	임정명	임종일	임진영	임태우	임호장	임화수	임효일	장고웅	장세인	장세환	장연화	장윤영	장인순	장정미	장진석	장진수	장혜옥
전국일	전금숙	전명숙	전순숙	전영선	전윤희	전지현	전진녀	전진호	전효금	정경란	정경주	정규재	정규진	정근환	정년영	정명주	정미숙
정미영	정복순	정상식	정선영	정성률	정성욱	정승영	정양자	정영구	정영애	정옥화	정원효	정유창	정운근	정은진	정의조	정종현	정지현
정혜영	정훈희	조규자	조미자	조병준	조상운	조선미	조선영	조성기	조양명	조영순	조영옥	조정식	조태임	조현미	조준모	주경숙	주명숙
주명자	주미경	주미진	주선숙	주영택	지말순	지성순	진길성	진미혜	차병준	차연실	채영재	천미진	천수형	최경민	최경옥	최경임	최경희
최기숙	최등석	최미경	최미화	최미화	최봉례	최부석	최선열	최선화	최성만	최성희	최순남	최순복	최영미	최용석	최용옥	최용재	최윤리
최인미	최진일	최정순	최종근	최종섭	최춘숙	최현경	최현철	최효순	태호진	피자영	피해선	하경희	하만두	한경수	한경애	한동수	한미옥
한상성	한승용	한영임	한정득	한현구	한혜영	허수빈	허숙자	허영옥	허필영	허희수	현은경	현종훈	홍미영	홍성아	홍승우	홍승은	홍순이
홍용하	홍정옥	황미경	황보윤	황연록	황영하	황옥기	황옥순	황정숙	황종선	황채연	황현숙	곽은혜	김동석	김동식	김명자	김미희	김순중
김영재	김윤동	임수연	김현	김혜정	김성진	박낙준	박선호	박선명	박영희	신명선	신삼수	양소영	유진수	이주아	이주호	임수연	임종섭
임화수	정금옥	정병일	정상식	김혜영	김혜정	주영택	장은심	박문수	장은경	조병훈	한진영	이용갑	강순영	이성연	김옥자	신현애	이학규
송기재	박세현	장은태	김윤주	김진경	박용호	임영남	김순선	추정순	심민아	박영덕	임명숙	오윤정	장덕수	정운순	윤정미	이지영	김민숙
김봉규	조혜진	전부현	목지연	강문수	조경희	김계문	김창철	박정선	최복기	고복신	김태석	손기봉	장희연	유순화	정순영	박진우	정은순
공은자	김아실	권춘자	이유순	남궁은하	김애희	권은미	김명중	박광식	박종화	정화섭	김수진	정훈희	이경열	장진성	황현숙	김유경	박종석
하연숙	김기영	김정례	전윤희	심재훈	최효준	박시범	김선명	김철	김철우	이선경	이미라	이근자	최금옥	이세정	김재숙	김지영	김명주
한옥봉	윤은영	박유연	윤덕유	이계자	문문희	배경석	강화삼	박종문	김영숙	황정성	진덕성	공광식	이상환	심금숙	김순례	송정호	오이진
김은자	양정숙	이희균	김미경	태윤미	임인숙	배장훈	배성훈	소정아	이종구	이지은	이인우	김건용	김유진	이지숙	이지연	조성찬	이동호
왕영숙	박용식	정대홍	차범찬	위영량	강성욱	김보희	전경중	박양희	이은철	김용이	서예재	김정숙	이은주	박홍서	양은하	노지숙	양원영
김상우	홍승천	안동훈	이창수	김점옥	박종호	박항미	정석순	김주선	한관식	박미현	이상겸	최광섭	최명희	박귀선	주연선	강경남	서경화
박동만	이상용	송정민	노인옥	송규민	정화자	권경희	신명용	신미옥	한병석	박시원	김영노	임수연	김연제	최부석	윤은주	염정범	최동석
고순희	박지연	이선구	박희정	황영하	김광원	김병선	김진수	박선정	김현주	박전애	김미정	문영진	박혜원	김옥란	이보영	배병훈	허필영
김중문	이현덕	이주원	강선희	최선화	장상철	이강민	임희수	이현주	신선영	박훈봉	김도현	김현화	심은진	최선열	이상모	김경희	민성옥
김지은	신미경	윤정희	정소영	박기완	박수민	김윤정	박수현	안경주	곽정옥	김갑년	정금옥	이수경	박기화	황준영	성준호	김경숙	성예지
김태일	이정의	김순필	성은모	정찬심	김영훈	김영희	이점미	김은정	황정숙	최재훈	김효정	방은기	허 윤	도정환	강애자	박정희	유홍근
반용완	김대진	김계옥	조영옥	이선애	김영희	한원영	이승택	홍광순	강돌이	장미	김미란	안경진	이성희	방호국	윤진남	정명숙	문명숙
주영자	박미옥	박미화	김진용	소영순	정숙영	김미경	전진희	김진아	이현선	이문창	유점화	김영희	방경산	김규열	최진일	김남희	윤두환
안윤경	김중열	지성순	한선희	이호연	양은애	최기숙	김선금	박경대	박종현	신인철	유지원	강영애	강지연	이미선	김갑점	서소영	김영환
허효영	천미진	김기운	송승미	dxorjs	이동현	이미애	이수진	이소담	이학용	한정득	최호준	신준동	이미자	김순례	한지은	조현진	강상익
조경자	박성현	신정원	엄수용	김현경	윤숙희	장봉수	김대환	안지영	생재업	김영미	배태훈	배수안	김동석	유현숙	배준한	권영주	이승찬
김명선	김혜영	이현각	김윤혜	이항구	조상운	구애순	임선숙	부유석	이재형	강막점	김병주	김복영	오명선	정미현	김순득	이창순	이계훈
백준근	이지윤	송차영	정창배	이미선	류순하	천기복	이종찬	신민선	허금란	백선미	김경수	김상준	이상규	이미옥	신간성	송문숙	김경자
신선미	손연배	민홍금	이갑순	황은옥	황미옥	신지은	신재영	이성열	신원섭	한미현	남영애	한상성	이정희	이윤광	박주연	홍지희	허선옥
장효동	김순애	이화연	김효준	이경민	홍혜진	김강산	이영주	고순덕	장병구	신은숙	장명숙	이할란	김영목	박상진	김윤정	허춘수	신동성
윤정희	권용찬	김여진	민지은	고병진	김명순	이정희	이은경	방은진	김보희	강윤정	박진양	한예호	임호장	안상선	김미경	최성희	임경순
송지나	김대원	이건미	김효재	강정희	이정호	김윤정	서미애	김지형	안진경	이경화	이승호	김민자	전영순	강봉도	노부덕	최병규	김남표
조현석	윤정식	손혜정	정화중	노수관	이순덕	강순두	손채은	조재호	이명규	이순희	김현정	구지현	구인희	구효영	이혜영	김경미	김유생
최옥경	한정수	김경화	심준영	조강원	채주연	신혜숙	조호진	이은정	권혜영	조용명	박래수	최경매	유임우	유선희	정숙희	이상일	기주연
이주영	이병희	신현중	최종구	박민지	유용근	김세윤	장태영	노형철	이종하	강순이	조철형	전명희	한미나	신동재	유기남	유창수	최은미
한정균	김지현	조남희	이을순	박진규	박주연	김정경	조승현	임미옥	석익근	김경애	김영숙	김경환	정원주	최문신	이현숙	박희분	김선태
김정환	박은주	김승기	장영준	이상덕	김경수	조채영	유호진	오영수	김현석	김후남	김승덕	정희재	김영순	이정주	김혜숙	배귀홍	전종태
이강주	안석진	이영배	김유현	문옥순	김종래	김주범	노금희	김대옥	김석열	박미자	남은경	황성철	황지민	정영구	이숙재	최정미	강영선

이정순 오민석 권오숙 신희현 성선이 채경순 차미선 이남진 백원식 이화용 염훈자 박계숙 이도연 구정호 한덕규 김안섭 김광린 김혜정  
 김영자 현지윤 진용완 이오승 지홍철 강금례 장진영 이정희 이종운 김동섭 한현심 김범유 김혜성 손고명 손상태 강순희 강명수 나원민  
 박중순 서동순 문경미 이근재 이수민 김인선 남명숙 김유진 조명숙 양 수 공우태 이근재 신영희 최준희 문규영 윤정원 이광우 이진숙  
 이상민 전재형 김순희 전혜지 정영숙 김정희 허지혜 허영실 장성욱 전수현 유원균 박규용 김정은 박상현 최경태 한기홍 백상훈 고정미  
 김현미 송충열 전형국 은형표 이혜정 김기호 이효심 신영준 오재항 이만재 이종진 이상진 남양우 조순구 이명심 최영철 최경자 정덕기  
 임말선 김윤홍 손동찬 이진호 김혜영 박정순 김순희 정지형 강명향 손현주 홍금란 산은화 신진영 윤혜정 정해숙 강혜진 박치호 연태우  
 민경부 차정돌 이지하 이권희 이재규 오순옥 이은숙 김경화 김경복 김영미 양호순 박영미 신현율 조재현 김덕천 강현주 신영심 손경원  
 권용민 김은정 황금희 이창희 이재철 김선미 진영옥 김양지 서인숙 심춘옥 이희수 차나영 김성호 최화숙 이금희 권순정 이상림 권희은  
 정현미 심성규 이소민 변지민 변지용 이지숙 최찬호 김명숙 김유현 김상균 김정은 김홍운 차국희 김윤정 강차림 홍경숙 손미영 방정옥  
 정인순 김홍구 과노봉 김상길 이태현 김승규 임문규 이종윤 최 현 옥승은 옥태훈 박성현 박성해 김명수 김일여 양환서 강경태 정지숙  
 김중직 최광수 최 행 이성순 조정자 이지훈 최영숙 이명희 이선욱 김경민 최태우 박국희 최치원 최재원 이규숙 유옥영 송상혁 강은영  
 신명수 조순미 황연록 전수경 김기연 천 윤 박경혜 김희경 한영희 최창열 이정숙 이산욱 김경진 여운형 여승업 여승민 문제물 성하목  
 윤석기 김승식 이경주 표무순 신승한 구계선 원이선 조지원 김혜원 홍연덕 이용익 김종판 강은자 김갑달 임재휘 김미경 신현석 강성도  
 신용직 강희창 오옥연 구중효 세승효 이종필 권기현 권오건 권오준 임지원 하태호 권영자 최순자 강건욱 전성현 정구임 안오민 이한직  
 정길선 이찬우 박희진 안유경 안태경 박호균 권대홍 한일도 김철민 광상운 홍여림 박현경 김진순 조선욱 김희자 임병근 이희자 박옥경  
 이종금 김보신 김진주 최준형 김죽자 신동호 최의성 홍성진 황상수 황운지 신형우 신진섭 신용섭 신은영 이춘태 유지현 박종원 오문석  
 오분남 최세화 이영민 장경순 고은지 안선주 박다현 홍성희 김순옥 장광수 윤세원 한보라 남명순 이현숙 이운상 최영도 신경희 김수정  
 한복만 박태권 박진주 김 한 김계서 김재영 김유미 남광표 이순옥 최은영 최유진 정시경 김희상 조성일 주진경 김명훈 오창호 신동훈  
 신동민 신동석 김남훈 황현주 김경선 박광민 강병길 오명순 김지섭 오충연 오충제 조병학 민항기 박승우 허연재 조범준 성락기 최준희  
 choichantelle 최주희 신창근 김영아 김옥녀 김미나 김창수 김명수 김성완 박정문 이 민 김봉옥 이승렬 황덕규 안중환 김경순 안보현  
 김중목 최수경 박국현 김혜미 김영규 송태호 이기관 임태호 이석희 신성희 김대준 이병구 조영훈 민인숙 김순근 한미옥 김춘분 이용희  
 오삼식 임미현 박은선 이재영 한병선 안은영 오교진 이재욱 김순기 임귀열 태선영 최경희 여병규 김정은 김민준 김민욱 정다운 박경숙  
 정종운 이수정 지선미 강호준 원항란 황윤희 김유진 박승훈 염중식 손정현 변정식 문선자 하현진 황환철 이기봉 남정우 김희진 유지숙  
 김해민 정혜경 김미래 박재은 박상욱 이영자 홍석현 김철순 장정자 박현숙 이영주 이흥건 이현주 성달호 정진봉 이영자 정용섭 국득남  
 박중수 전병천 소재연 이점순 주미진 정선희 최인성 최설하 동정화 김규진 정세아 이정무 장은희 최광식 이미숙 이연자 양영수 차운섭  
 양미영 최상범 김선화 김선자 이재욱 안영옥 공기선 이진복 정운중 양성욱 심기훈 김중대 이수진 이영남 정광연 이상민 김선욱 이명례  
 이만중 오정교 심민규 심경보 임상혁 이연태 최오숙 안영화 김계범 최수민 최기영 최설하 최선우 최지연 정근영 정재원 정민규 이경아  
 박민석 오남희 정성훈 배재형 김재영 권오덕 최경희 이원근 이화근 김찬유 우복수 박미희 유달현 김선희 박미숙 이기호 오태석 최신득  
 최영아 신철호 김동식 김혜미 박경환 김택진 박경재 박치화 김기석 백철기 진중관 송진식 문익정 김인영 박종식 류인용 박미경 양기환  
 조용섭 김수기 김정희 한규원 정기희 이광재 김몽래 박은희 한주연 황지호 정미숙 홍명옥 이홍분 김달현 김성태 백찬성 김장근 이혜원  
 서해안 윤경희 박인순 박희숙 이은정 오해균 장승규 장익진 박순이 최은숙 김선학 황이경 홍화순 송미화 정월영 정예우 이진석 이주석  
 황명자 박희선 최영순 남기훈 이근구 강숙희 안영환 김보석 윤문숙 강 진 최우진 이연실 안경숙 오영주 최현숙 채희영 김을호 유인숙  
 박현숙 이현주 이영주 김정숙 김이자 신상호 김명순 김경애 김애영 김계영 김운식 공지원 김미라 백경원 김상두 이영기 박태경 이주열  
 박성규 이원조 이순옥 이용진 이현진 윤성훈 주홍근 임길현 김혜숙 이한양 이지현 김옥진 김경선 이광식 김두임 김승옥 김승민 문동주  
 김동길 홍지근 최은은 박미숙 박건순 최재호 배영환 조항린 김경호 양우석 류제형 정미라 한지우 한지범 이선희 김기철 문현숙 이일형  
 장영욱 차재룡 송미정 엄홍희 김옥남 양택택 양태영 이다훈 이명재 이경미 이경숙 이현주 서인자 김병하 김학명 윤옥식 진기종 장현숙  
 김은경 김현철 한영희 허영상 오세광 오소희 변길남 조구희 박기환 정민규 황순자 윤영길 한범수 이 슬 배종원 김순남 연정주 김경숙  
 윤영선 김영미 이슬비 조연형 최정영 김시영 김동희 오은한 김중대 황태경 김경환 윤경희 강단영 심혜경 안상우 안동소 한지영 조석보  
 오길성 강주희 홍기훈 홍석정 양보현 차주엽 민성현 홍현진 장시영 박영동 정진화 정송희 심은경 심창환 정연준 성열익 김희숙 민경아  
 문은미 이용길 김은지 송예지 김은지 송홍중 신동철 신동환 최수미 이정관 김봉래 이광희 임만섭 김필선 이선녀 김영선 이용화 김소미  
 송정옥 박중규 곽계화 신현숙 조민준 김승모 손혜정 김진천 송미정 김주환 양순옥 조윤경 조윤주 조상현 이정숙 박소영 정호선 김은주  
 정문규 이상황 한성구 이미연 임진익 신진숙 신영한 박소영 성희경 박세용 안씨종 오소영 김지인 박찬애 김성진 김효진 변여승 장재희  
 태혜숙 이은숙 강효령 김진홍 박현주 장 미 김명자 김은하 국민생활체육전국국학기공연합회 강원노교육협회 경기노교육협회  
 충북노교육협회

# 제3자 검토 의견

alt.lab은 ‘국제뇌교육협회 지속가능성보고서 2016’ (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 목적

이 검토 의견서는 국제뇌교육협회가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단체의 주요 정보와 관련 활동, 그리고 지속가능성 이슈가 중대한 오류가 편견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고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개선노력이 필요하지 객관적인 검토 절차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검토기준 및 제한사항

alt.lab은 AA1000AS(2008) 검증 표준의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원칙을 토대로 하고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보고 원칙의 4대 항목(이해관계자 포괄성, 지속가능성 맥락, 중대성, 완전성)을 참고하여 보고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업무의 범위는 2015, 2016년 성과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상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고서 세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토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주요 검토방법

보고서에 대한 검토는 국제뇌교육협회가 제공한 관련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NPO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품질에 대한 작성 원칙 적용 여부
- 보고서 정보 수집 및 내용 작성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 확인

- 보고서 내에 기술된 내용의 적합성과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 지속가능성 이슈의 선정과 관련 기술 내용의 적절성 검토

## 검토 결과

alt.lab은 검토 의견서에 기술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검토 의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서 수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수행한 검토 활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 검토 의견을 밝힙니다.

### 포괄성(Inclusivity):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참여시키는가?

- 국제뇌교육협회는 후원자 및 시민, 임직원, 이사회, 자문기관, 협력 파트너, UN 관련 기구 등 6개 그룹을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주요한 소통과 정보 공유 채널을 보고하였습니다.
- 국제뇌교육협회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요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 이슈를 파악하였습니다.

### 지속가능성 맥락: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맥락 하에서 조직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가?

- 국제뇌교육협회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의 17개 목표와 단체의 사업을 연계하여 보고하는 등 사회 전반의 이슈와 단체의 활동을 연결하여 보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국제뇌교육협회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교육 및 진단을 실시하고 NPO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의 보고지표에 맞춰 관련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였습니다.

### 중요성(Materiality): 조직과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이슈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는가?

- 국제뇌교육협회는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내부 영향력 분석을

기반으로 보고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고, 외부와 내부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분석이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였습니다.

- 국제뇌교육협회는 중요성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중요 이슈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이슈에 대해 보고 기간의 주요한 활동을 공개하였습니다.

#### **대응성(Responsiveness):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의 관심 이슈에 대응하고 있는가?**

- 국제뇌교육협회는 이해관계자의 관심 이슈와 기대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 계획을 보고서에 공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국제뇌교육협회는 ‘조직운영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하여 향후 활동 계획을 제시하여 실천 의지를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권고사항

alt.lab은 더 지속가능한 조직이 되기 위한 국제뇌교육협회의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 검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 국제뇌교육협회가 금번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협회 운영에 대한 고민을 이해관계자와 함께 풀어나가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인 점은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향후에는 단체의 다른 논의들 또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를 공식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 국제뇌교육협회가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뇌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3장의 내용들도 협회 활동의 근간을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의 내용이 앞 뒤 보고내용과 연계성이 적어 보입니다. 향후에는 협회의 활동에 이해를 돕는 부분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도출한 중요 이슈(혹은 핵심이슈)와 연결된 활동성과를 충실하게 보고함으로써 보고서의 완결성이 제고되기를 바랍니다.

- 국제뇌교육협회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으로서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국제 사회가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권, 환경 등 유엔글로벌콤팩트의 4대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사업 보고에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단체 내부에서도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적용하여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alt.lab

2017년 4월

# NPO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 보고 지표

●모두 보고 ◐일부 보고 ○보고 안함 - 해당 없음

영역	주제	지표명	보고여부	페이지
조직 프로필	조직 개요	조직의 일반 사항 소개	●	10, 12~17
		조직의 미션과 비전	●	11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조직의 핵심 가치	●	11
		지속가능성 지향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조직의 연관성	●
	이사회/운영위원회 및 의사 결정	이사회/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	●	12~15
		의사 결정 체계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위한 노력	◐	12~15
	이해관계자	조직의 주요 이해관계자 구성	●	20~21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	●	22~25
보고의 조건 및 특성	보고서 개요 및 보고 범위	●	앞 표지 뒤	
	보고서 신뢰도 증진 노력	●	107~108	
조직의 지속가능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재정 운영 및 재무적 건전성 현황	●	96~101
		재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활동	●	100~101
	윤리적인 조직 운영	재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노력	●	97~98
		윤리 경영/반부패 정책과 활동	◐	4~7
	환경보호	환경오염 저감 및 생태계 보호 노력	◐	43~49
		자원 절약 및 에너지 저감 활동	○	
	인권 노동	기본적인 노동 권리 준수 현황	○	
		직원/활동가들의 보건 안전을 위한 활동	○	
		성 인지, 차별 금지, 다양성 존중 노력	○	
		직원의 만족도와 고충 처리를 위한 절차	○	
		일과 삶의 조화와 자기 개발 지원	○	
	직원 외 활동가 대우 및 상호 소통	○		
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현황	◐	101	
가치 사슬/영향권	가치사슬/영향권에서 지속가능성 노력	○		
프로그램 효과성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	프로그램의 선정, 목표 및 계획 수립 절차	●	42~93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 절차	◐	40~93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노력	○	
	조직 가치와의 연계성	프로그램의 임팩트를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	35~36, 42~93
	파트너십 관계	파트너십 관리 현황, 기대 효과 및 성과	●	20~21, 42~93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고려와 참여	프로그램별로 파악된 이해관계자	●	42~93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 현황 및 결과	●	20~21, 42~93
		프로그램별 이해관계자 고충 처리 절차	○	
인권에 기반한 접근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관점	◐	7	
	인권에 기반한 프로그램 및 활동 수행 노력	◐	50~53	









## 국제뇌교육협회 IBREA,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

국제뇌교육협회(IBREA)는 오늘날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이 인간 뇌의 창조성에서 비롯됐듯, 인류의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열쇠 또한 인간 뇌 속에 답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뇌를 만드는 철학, 원리, 방법론을 갖춘 '뇌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만들고자 설립됐습니다. 2009년 2월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6월에는 유엔공보국(UN-DPI) 정식 지위 NGO로 등록됐습니다. 웹사이트 [www.ibrea.org](http://www.ibrea.org)